

620.911
74562

석사학위 논문

제주도의 담과 거육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金 昉 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정 은 선

1999년 2 월

제주도의 답과 거육대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金 昉 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11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출자 정 은 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은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199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 위원	인
심사 위원	인

<抄錄>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 관한 연구

정은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金 昉 熙

제주도의 마을 곳곳에 담과 거옥대이 세워져 있다.

담(塔)과 거옥대는 가축, 재산, 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지리적으로 虛하거나 弱하여 굶은 것이 들어온다거나,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는 마을에 세워지는 집단의 공감을 형성한 공동체 문화의 상징적인 조형물로서, 개인 지향적이거나 엘리트(elite)적인 창작품이 아니라 民衆 心意를 공동 조형활동을 통해 창출해낸 투박하고 가식없는 소박한 미와 위압감을 주지 않는 안정감이 적절하게 조합된 민속 미술이다.

담과 거옥대는 돌무더기 그 자체와 돌무더기 위에 나무나 돌로 만든 형체를 얹힌 것으로 '가마귀동산', '담', '가매기동산', '가막동산', '담', '돌하르방', '거오기', '거옥대', '거우기', '가마귀', '매조자귀'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운다.

최근에 서구 과학문명이 발달로 산업화, 도시화된 급격한 물결 속에 이러한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속단하여 단순히 外面하는데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민속 문화적 가치의 연구도 미비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도 전역의 담과 거옥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1998년 1월~1998년 8월 까지 우선 현존 자료와 문헌을 기본으로 하여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21개 지역의 현존하는 35개 담과 거옥대의 실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도 담과 거옥대의 신앙적 체계를 파악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진 조형의식과 미 의식을 규명해 본 결과 제주도 탑과 거옥대의 형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소박한 미와 시각적 안정감이 적절하게 표출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탑과 거옥대 위에 얹힌 石人像은 頭部를 강조하였고 단순한 형태와 부분적인 線刻처리로 음각과 양각을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풍수사상과 음양오행론에 바탕을 둔 제주도의 탑과 거옥대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루는 野外에 세워지며, 환경 친화적인 조형적 요소도 함께 고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제주도의 탑과 거옥대를 한국 미술의 한 장르로서 인식시키고 미술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그 동안 도외시하여 왔던 제주도의 탑과 거옥대이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 차

<抄 錄>

I.서론	1
II.담과 거옥대의 형성 배경과 조형성	4
1.담과 거옥대의 형성배경	4
1)풍수사상과 환경과의 관계	4
2)담과 거옥대 신앙의 형성	8
2. 담과 거옥대의 의미와 조형성	10
1)담과 거옥대란	10
2)담과 거옥대의 기능	15
3)담과 거옥대에 나타난 조형성	20
III.담과 거옥대의 현지유형과 분포	28
IV.결론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3
참고도판	65
<부록>	

I. 서 론

오늘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基層文化遺産 중 마을에 세워진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 관하여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담과 거옥대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해 온 민간신앙에서 형성된 민속미술중 하나이다. 토속적인 민간신앙과 풍수사상이 함께 전해져 내려왔으며 조형방법과 형태면에서 볼 때 조형적 가치가 있는 석조형물이다.

담과 거옥대는 민중의 생활 공동체 속에 생존이라는 공동 목적의식을 가지고, 개인 지향적이거나 엘리트적인 미술이 아닌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 얻은 공동체 문화의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담과 거옥대는 돌무더기 그 자체와 돌무더기 위에 '돌하르방을 닮은 石人像', '나무새', '자연석' 등 형체를 엮힌 상징적 대상으로 '거옥대', '돌하르방', '탑', '가매기동산', '가마귀동산', '까마귀', '거오기', '매조자귀', '액담', '가막동산', '담'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운다.

이러한 담과 거옥대가 오늘날 한국 미술 속의 한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담과 거옥대의 신앙체계와 조형적 가치를 밝힌다는 일은 그 속에 내재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당시 민간의 조형적 흐름도 함께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현존자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현지조사에서 얻은 실질적 자료를 토대로 제주도에 분포하여 있는 담과 거옥대의 민속 신앙과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1)연구의 목적

제주도의 민속미술의 하나인 담과 거옥대는 제주도의 민간신앙의 원류와 제주도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 문화발전의 방향감

각을 喪失한 채, 우리의 전통적인 기층문화요소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체계화된 작업은 그 요소들이 迷信的이고 脫文明的이라는 관점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상황에 와 있다.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풍수지리적으로 虛하거나 弱하여 굶은 것이 들어온다거나,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는 곳에 세워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석조형물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사라져 가는 담과 거옥대의 현황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그 민간신앙 체계를 파악하고 어떤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가지는가를 추적하여 제주도의 기층문화유산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담과 거옥대의 민간신앙으로서 나타난 정신적 배경과 다양한 형태, 제작방법·재료, 기능을 고찰하여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 표현된 조형의식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그리고 북제주군을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그 결과 서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군에서만 담과 거옥대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론적 배경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조사지 선정은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과 지역을 선정하였고¹⁾, 이를 바탕으로 하여 現地 調査에 임하였다. 그리고 現地 踏査를 통한 새로 발견된 담과 거옥대도 포함 시켰다.

필자의 현지조사는 1998년 1月初 ~1998년 8月까지 이루어졌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현지조사는 아니지만, 대개는 담과 거옥대가 있거나, 있었던 곳을 여러 문헌이나 구전을 통하여 확인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시에는 현지답사를 가능한 한 지역을 3차례 이상 방문하여 담과 거옥대의 현존 여부를 확인한 뒤, 현존하는 담과 거옥대가 현존하지 않는 담과 거옥

1) 담과 거옥대의 조사지 선정은 강창언(1995), 제주도사연구, 제주도사연구회
강창언(1997), 제주도 민속유적, 제주도 등을. 문헌을 참고로 답사지를 선정하고 작성하였다.

대의 위치 조사를 先行했고,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생활한 60歲 이상의 老人으로부터, 답과 거욱대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질문법을 통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조사보고서나 관계 논문에서 발견되는 오류도 시정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지조사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2. 제주도 제주시 내도동.
3. 제주도 제주시 영평 하동.
4. 제주도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5.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6.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7.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8.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구룡동.
9.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10.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11.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12.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고수동.
13.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14.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15.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16.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2리 전담동.
17.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18.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19.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우도면 '하고수동', '주흥동', '영일동'.

현지 답사를 통한 조형성 고찰과 현지인 직접 증언을 채록하여 답과 거욱대의 설립 배경 및 기능성의 고찰이 그 基調를 이룬다. 작품의 표집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한 현존하는 답과 거욱대를 총괄하여 수록하였다.

II. 담과 거옥대의 형성배경과 조형성

1. 담과 거옥대의 형성 배경

1) 風水思想과 환경과의 관계

제주도의 문화란 제주도라는 자연적 환경과 역사·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제주도의 기층문화양식으로 거기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

제주도 풍토의 특성을 흔히 石多, 風多로 표현한다. 제주도는 지리학적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대륙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 전파가 용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육지와 완전히 고립되어 전혀 영향을 받는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이 고립성을 면치 못했던 것을 말한다.

제주도가 일찍이 일본의 九州와 중국의 華中을 연결하는 통로 구실을 함과 동시에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태고의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제주 선인들의 서민적 지혜가 응축된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민속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을 정복하려는 저항적인 태도가 아닌 대자연의 혜택에 순응하는 자세로 소박하고, 협조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순박한 미를 창출하고 제주도만의 고유의 민속문화를 형성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환경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 속으로 찾아들어 가는 것이며, 비보라는 인위적 행위도 항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보족적인 방향에서 행하였다. 지리적 환경의 부족한 점을 인위적으로 개량하려는 補禱로 세우는 담과 거옥대 같은 형태가 되어 제주도의 특성을 더 강화시키게 된다.²⁾ 이것은 지리적으로 허술한 곳을 종교적

2) 강길부(1983),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의미" 「계간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 p163.

힘을 빌어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비보의 가장 큰 역할은 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양오행의 이론이 응용되는 타당성을 엿볼 수도 있고 환경의 중요성과 배경과의 어울림은 풍수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 풍수지리사상(風水地理思想)

풍수설을 크게 두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성립된 이론이다.

하나는 천지 정기설(天地 精氣說)이고 그 둘은 인체 감응설(人體 感應說)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서 움직이는 정기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 정기설인데 이 정기설는 산맥을 타고 지하로 흐르고 있고 또 바람과 물에 실려서 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기는 천지간에 균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곳에는 짙고(濃) 강하게 흐르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매우 약(惡)하게 흐르기도 한다는 것이 정기설의 본질이다. 다음 둘째로는 감응설이란 이러한 천지간의 정기에 인간은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상이다.³⁾

풍수사상은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하나의 체계화된 사상으로 정리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이후라고 한다. 중국에서 발달한 풍수사상이 언제부터 한반도에 전파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에 풍수사상과 관련된 사신수가 그려져 있고, 음양오행에 대한 기록도 있다.

고려왕조는 개국과 더불어 풍수사상이 널리 퍼졌으며 고려 정책상의 諸誠의인 태조가 내세운 「訓要十條」에서도 도참과 풍수설에 의하여 국가통치의 방향을 규제하였다. 훈요십조에 의하면 제2훈에서 도선 선사가 지정하지 않는 곳에 함부로 절을 짓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고, 제5훈에서는 자기가 고려를 세운 것은 삼한 사람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제 8훈에서는 차령산맥 이남의 지세가 반역형이므로 그 고장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풍수사상은 山水, 水流의 모양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직결시켰고, 이러한 것이 국가의 발전과 쇠퇴에까지 풍수사상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풍수사상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일반 대중 속에까지 깊게 파고들게 되었다.

3) 이종항(1983), "풍수설" 「계간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49-150.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배불 송유정책을 국본으로 삼았으므로 유교의 생활화와 더불어 풍수사상이 더욱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크게 작용하였으며, 상류층으로부터 일반서민에까지 음택 풍수설이 가장 깊게 뿌리 내려진다.

상류층에서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조상의 묘(陰宅)나 집터(陽宅)를 잘 써서 가문을 발전시키려 하였으며, 심지어 서민들까지 풍수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집터와 집 방향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좋은 터를 찾아내려고 가산을 탕진한다든지, 일정한 터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끊이지 않는 등 풍수사상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에서는 그 지리·역사적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어려움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사람들은 이러한 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찍이, 풍수사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풍수가 인간의 흥망을 결정짓는다는 신앙은 사람들을 운명론적인 사고 속으로 몰아넣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제주도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인 자구적 수단이었다.⁴⁾

그러므로 현실적인 고난을 숙명적인 것으로 알고 수용했던 도민들은 자손이나 마 그런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명당을 찾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으므로, 풍수 관념은 육지에 비해 더 강했고 속신 또한 성행했는데 풍토의 불모성과 외세의 잦은 침투에 대한 보상적 심의현상으로 나타나 풍수설을 하나의 신앙적 대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다.

나.陰陽의 의미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들어지고,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필요로 한 것을 자연으로부터 받는다. 어떤 힘이 작용하여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 식물, 동물 등 우주만물이 만들었다. 그 힘은 계속해서 이들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어 왔다. 우주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힘을 '氣'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그 힘은 陰과 陽이라는 두개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음양론을 만들었다. 또 음양이 서로 결합하여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성질, 즉 木火土金水이 오행으로 나타나 이른바 오행론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범칙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인간의 운명을

4) 조윤득(1987), "제주석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p113.

에지하고 철학적 체계로 자리잡게 되었다.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양의가 四象을 낳고 사상이 八卦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하였으니 역은 二生二法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의 근본이 되는 농업을 잘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겨난 역(曆)에서부터 지성의 만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인 향기로 발달한 역전에서는 역이 팔괘를 발생론적으로 설명하였다.⁵⁾

양의는 두 가지 양태를 뜻하는 것이나, 태극이 한 번은 陽이 되고, 한 번은 陰이 되는 시간성과 태극이 음양을 나뉘었다는데 동시적인 공간성을 포함하는 말이 즉 양의는 태극의 양과 음의 두 가지 양태로써 실제적인 운동을 하니, 양의 경청한 기운이 위로 올라 하늘의 體를 이루고, 음의 重한 기운이 안으로 엉켜 땅의 形을 갖추어 천지가 창조되며 음양의 氣의 작용으로서 氣質序가 파괴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원시종교인 정기론과 관계가 있다.⁶⁾

우주만물을 생성, 변화시키는 ‘氣’라는 힘은 땅 속을 흘러 다니며 땅 위의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땅 위에 모든 생물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 氣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이며 인간을 떠나 독립하지 못한다. 또한 山河, 山澤, 日月星辰에도 氣가 있어 공간과 시간에 걸쳐 작용한다.

음양의 근본적 의의는 천연한 日光과 암흑의 雲이 대립시켜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연의 양극은 時空上에 상반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男, 女, 強, 弱, 上, 下에 의해서도 표상된 사고로 陽은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남성적인 지성을, 陰은 賢者의 고요하고 명상적인 정숙이며, 여성적이고 직관적인 마음을 나타낸다.⁷⁾

삶의 장소가 정신과 육체의 모두 적절한 쾌적함을 주도록 배려함은 음양이 고루 섞인 조화에 의한 것으로써, 인간의 윤리질서와 자연의 이치의 모습을 구별하는 것은 음양의 변화로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사이에는 우주적 흐름인 기에 입각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화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5) 유흥열(1981), 한국사 대사전, 교육출판사, p1533.

6) 유명종(1983), 중국사상사 고대편, 이문출판사, p329-330.

7) 전향변(1987), 음양에 기초한 조각 작품제작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p10-11.

2)답과 거옥대 信仰의 형성

원시예술이 문명사회의 예술과 다른 점은 그것이 예술을 위한 예술(I'ART POUR I'ART)또는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 아니라, 실용가치의 직접된 예술이라는 점으로 종교, 사회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들과는 미분화 상태에 있다.⁸⁾

종교와 예술이 혼합되어 여러 가지 상징으로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친숙한 동물이나 식물 등의 생명력은 일종의 정령으로 그들의 주술적인 내용이 이입되고, 자연의 신비한 힘은 超人間的인 이미지로 변형이 되어 자연히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강렬한 주술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신적 배경을 이루는 것들은 샤머니즘, 매직, 토데미즘, 애니미즘, 자연숭배사상, 巨石, 巨木숭배, Mana숭배 등으로 이어지는데 우리의 三國時代의 各國과 중국, 몽고족의 鳥竿과 神像을 세우는 「鄂博:오보」와 木刻神像과 鳥竿의 결합 히모리(Xi-mori), 시베리아 지역의 석상과 농경사회의 유산인 선돌, 풍년을 비는 용신기(龍神旗)의 유습 등이 습합되어진 새로운 종교형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방의 퉁구스족과 우랄·알타이어족의 긴밀한 관련을 지으며⁹⁾ 남근숭배사상, 링가(Linga)사상으로 발전되어진다.¹⁰⁾

우리 선조들은 善神을 맞아 惡神을 쫓아 인간에게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영험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발현으로 인간은 對象神格에게 치성을 드렸고 祭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들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을 막아주고, 그리고 공동운명체의 발전을 함께 원했다.

신앙생활은 부락간에 단결을 도모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설치물의 형태는 우석단(偶石壇), 신수(神樹), 성황당, 당집, 장승, 솟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한 풍요와 건강의 획득이라

8) 이광규(1980), 문화인류학, 일조각, p104-105

9) 秋葉隆(1937), "조선문화에 就하여" 「조선문화의 연구」 p50.

10) 소기호(1994), 토속신앙에 표현된 장승의 조형, 전주대학원 석사, p5.

는 공통의 목적 아래 생존문제에 인한 집단의식의 발현으로 공동 조형활동을 통해 세운 조형물이다.

육지부 장승과 솟대 등은 마을의 길옆에 만들어지며, 외부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凶氣나 병마를 막는 벽사신의 수호적 기능과 「이정표적 기능」, 「주술적 기능」, 「출입금지적 기능」, 「경계표적 기능」¹¹⁾도 있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그 명칭과 기능면에서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담과 거옥대의 속신과 서로 유사하다.

형태 또한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장승, 솟대, 돌무더기, 선돌 등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神木·神檀 등과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화양상을 이루고 있다.¹²⁾

장승, 장신, 장생, 범수, 범사, 범수머리, 범슈, 수살, 수사리, 장군석, 거리탑, 탑, 돌무더기, 미륵님 등이라 하며,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 우석목, 용중석, 돌부처, 돌장승, 벽수머리 등이라 한다. 그리고 육지부에서는 솟대, 짐대, 진대, 오릿대, 솔대라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거옥대, 격대, 거왁, 극대, 까마귀 등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담과 거옥대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¹³⁾ 제주도의 주술 종교적 기능이 강한 담과 거옥대의 속신은 육지부 장승·솟대의 기능과 상통한 점이 있다.

11) 秋葉隆(1937), 조선무속연구 下, p85-110.

12) 이종철(1986), "장승의 현지유형에 관한 시고" 「문화인류학 제18차」, 한국문화인류학회, p143.

13) 제주도(1998), 제주도 문화재, 제주도 「중보판」. p418.

2.담과 거옥대의 의미와 조형성

1) 담과 거옥대란

담과 거옥대는 풍수지리적으로 虛하거나 弱 하여 굽은 것이 들어온다거나, 헛불·날불, 사각, 殺氣, 煞 등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는 곳에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가축, 인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공동으로 쌓아 올린 탑으로 '거옥대', '탑', '돌하르방', '담(塔)', '가마귀', '거오기', '매조자귀', '가막동산', '가매기동산', '가막동산', '가마귀동산', '영등하르방', '액담'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진다.¹⁴⁾

제주도의 돌하르방 조사 보고서에서 47기의 석상의 위치, 명칭, 기능을 자세히 소개하고 특히 주술 종교적 기능 가운데 거오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濟州에서 厄맥이 기능을 갖는 속신은 오히려 "거오기", "防邪塔"에서 발견할 수 있다. 거오기란 去厄이란 말에서 연유했다고 하는데, 어원이야 어떻든 돌무더기를 탑마냥 둥그렇게 쌓고 나무장대 맨 위에 鳥形木竿를 얹어서 담과 거옥대 위에 세워 邪氣를 막는다는 것이다.¹⁵⁾

담과 거옥대는 돌무더기 그 자체의 石磧 단독형과 돌무더기 위에 '돌하르방과 닮은 石人像', '자연석', '나무새' 등 형체를 얹힌 石磧 복합형 두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담은 돌무더기 그 자체와 돌무더기 위에 형체를 얹힌 것이며, 거옥대는 돌무더기 위에 무언가의 형체를 얹힌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개인의 창작품이 아닌 마을 공동의 작업에 의해 형성된 가식 없고 투박한 안정감 있는 조형물로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의 기능으로 세워진 공동체 문화의 상징적인 석조형물이다.

14) 강창언(1995), 방사용 담, 濟州道史研究「제주도사연구」, p164.

15) 이종철(1982), 장승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p57.

김영돈(1968), 제주도 石像石具"「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50號, 문화재 관리국, p32.

가. 담과 거옥대를 세우는 위치

담과 거옥대가 세워진 곳은 마을 공동체의 공간구조에서 대체적으로 마을 입구이다. 마을 입구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초자연적 존재들이 드나드는 장소로서, 때로는 재액, 악귀, 부정이 침입하는 곳이기도 하다.¹⁶⁾

곧 마을 입구란 마을 안의 '신성과 질서의 세계'와 마을 밖의 '부정과 무질서의 세계'가 경계 지워지며 동시에 접촉하는 공간이기에, 보다 강한 신성으로서 마을 밖의 부정을 막으며 마을의 안의 신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¹⁷⁾

이러한 장소성을 지닌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착되는 假面이나 손에 직접 짚 수 있는 전립적 도구가 아니라 부락이나 洞民들의 집단 의식 속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의 기반으로 설치된 물체를 말한다.¹⁸⁾

나. 담과 거옥대의 형태

돌담은 큰돌을 밑단으로 둥그렇게 구획한 뒤 그 안에 잡석들을 채우고 다시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차츰 원통, 원뿔 등의 형태로 마무리한 石磧(=돌무더기, 累石) 單獨型과 石磧 위에 '돌하르방과 닮은 石人像', '자연석', '나무새'를 얹힌 複合型 (①석적+석인상, ②석적+자연석, ③석적+나무새)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도 전지역에서 나타난 담과 거옥대는 석적 단독형을 이룬 것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담과 거옥대에는 석적(=돌무더기) 단독형은 있으나 현지 조사시 직접질문법에 의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몇 基의 담과 거옥대와 함께 마을에 공존했으나 4·3사건과 마을의 開明으로 인한 도로개설로 다른 기의 담과 거옥대 붕괴로 현존하는 담과 거옥대는 人爲 發生的인 석적 단독형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는 석적 복합형이 주로 이룬다는 하나의 독특할만한 지방형을 보여준다.

담과 거옥대를 쌓을 때는 미리 날을 정하여, 祭를 지낸 후 마을 공동 단위로 쌓았으며, 남자 어른들만이 주축이 되어 담을 쌓았다. 더구나 제주도의 담과 거

16) 村山智順(1937), 部落祭, 조선총독부, p166-167.

17) 이필영(1990), "마을의 공동체와 솟대신앙 「역사속에 민중과 민속」, 이론과 실천, p305

18) 김활경(1990), 한국 민간신앙적 설치물의 상징성과 조형성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p12.

옥대를 한번 쌓으면 허물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儀禮도 행하는 일이 없다¹⁹⁾.

①석적 단독형

형 태	위 치
석적 단독형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와 한경면 두모리의 2기의 담과 거옥대는 모두 석적, 석적+자연석의 석적 복합형이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석적 단독형 1기뿐이다.

②석적 복합형

형 태	위 치	
석적 복합형	석적+石人像	제주시 영평 하동,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석적+자연석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제주시 내도동,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구룡동,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시거니못.
	석적,석적+자연석	북제주군 우도면 하고수동·주흥동·영일동,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석적,석적+자연석, 석적+'+'형 나무새	제주시 이호2동 골앗.
	석적+나무새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고수동,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방구령,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19) 강창언(1996),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 박물관」, 북제주군

다. 답과 거옥대의 지역별 명칭

위 치	명 칭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답, 답, 덕지답, 가마귀
제주시 내도동	답,답
제주시 영평 하동	거옥대, 거오기, 거우기, 들하르방, 답,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답, 답, 가마곶동산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거옥대, 들하르방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답, 답, 들하르방, 거옥대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답, 답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구령밭	가마귀동산, 가메기동산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거옥대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거옥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방구령	거옥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고수동	거옥대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거옥대, 들하르방, 영등하르방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답, 매조자귀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답, 답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2리 전답동	답, 답
북제주군 예월읍 고성리	답, 답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답, 답
북제주군 우도면 하고수동	액답, 답, 가막동산
북제주군 우도면 주흥동·영일동	답, 답, 가막동산

라. 제주도 담과 거육대의 위치 분포도



유형표시	현존有無
●	현존
△	현존하지 않음

2) 담과 거옥대의 기능

담과 거옥대는 마을의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 보아, 어느 한 방위가 터져 있어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이 다른 지형보다 허하거나 약하다면 방어 조치를 해야만 마을이 副하고 평안하다고 믿는 '무언가는 막아 준다'는 風水裨補的²⁰⁾ 입장에서 담을 쌓았다.

그리고 이는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한계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민중의 심의가 투사된 집단의식의 발현에서 나타난 세계관의 표현의 조형물이다.

토속신앙과 풍수사상에 바탕이 된 액기는 풍수지리(形局, 水, 방위, 水口, 오름)의 유형의 것과 '날불·헛불', '煞', '살기', '호열자', '머채(=빛)', '도끼비의 출현' 등 무형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²¹⁾

토속신앙에 바탕을 둔 담과 거옥대의 주술적인 기능을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生産的인 것과 保護的인 것, 그리고 破壞的인 것이다.²²⁾

생산적인 것은 풍년, 풍어, 牛馬와 자손이 번성 등이고, 보호적이란 질병·전염병 등에서의 완결 또는 예방 등이며, 파괴적이란 凶氣, 殺氣, 火氣, 煞 등으로 주술적인 토속신앙에서는 재난을 예언하고 예방한다는 것이다.

마을의 현지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에 따르면 담과 거옥대는 대체로 ①마을의 액막이와 풍농을 위하여 세우는 일반 담과 거옥대 ②풍수지리적으로 허하거나 약한 지세에 세우는 담과 거옥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담과 거옥대는 개인의 창작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낸 투박하고 안정감 있는 조형물로서 민간에 하나의 관습으로 유행했던 풍수사상과 음양 오행론에 관련을 맺으며,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과 陰陽의 조화를 이루는 보족적인 수단을 통해 집단의 액을 막아 평화와 安寧을 기원하는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친화적 조형물이다.

20) 주장현(1993), "마을의 지킴이 한국 마을 문화의 상징" 「GEO 5-6 격월간」
두비인터내셔널, p80.

21) 강창언(1995), 전계서, p171~172.

22) 소기호(1994), 전계서, p4.

가.주술적 기능

①마을의 액막이와 풍농을 위하여 세우는 일반 담과 거옥대

유 형	위 치
마을의 액막이와 풍농을 위하여 세우는 일반 담과 거옥대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제주시 내도동, 제주시 몰래물,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북제주군 우도면 하교수동·영일동,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남제주군 성읍1리 시거니못.

②풍수지리적으로 虛하거나 弱한 지세에 세우는 담과 거옥대



유 형	위 치
풍수지리적으로 허하거나 약한 지세에 세우는 담과 거옥대	제주시 영평 하동,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방구령,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고수동,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북제주군 우도면 주흥동.

③역기(厄氣)의 종류

위치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골 왓 마을	내 도 동	영 평 하 동	물 래 물	인 성 리	화 순 리	무 릉 리	고 수 동	구 령 팓	성 읍 1 리	가 시 리	방 구 령	시 흥 리	두 모 리	용 수 리	전 담 동	고 성 리	신 흥 리	하 고 수 동	영 일 동	주 흥 동	
무형의 역기	殺氣	●	●																			
	사각 (凶氣)	●	●																			
	햇불· 날불											●										
	煞																	●				
	바다의 厄			●										●		●					●	
	盜氣									●												
	긋은 것																			●		
	호열자		●																●			
유형의 역기	오름										●											
	午方		●																			
	震方											●										
	巳形																					●
	巳方							●														
	陰部형								●													
	돌동산									●												
	尾群					●																
송장														●								

나. 제주도 답과 거옥대 위에 얹힌 다양한 상징성

①陰과 陽으로서의 상징

유 형	위 치
음양의 기준으로 陽:男性 상징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2리 전담동, 북제주군 우도면 하고수동·영일동·주흥동

②남자 性으로서의 상징

유 형	위 치
남자의 性 상징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구룡동

풍농과 다산을 추구하는 陰陽사상의 궁극적 원리가 性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풍수사상이 고대 성기신앙으로부터 분화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보아지며 풍수의 기초가 되는 음양사상의 근본원리가 性에 있기 때문이다.²³⁾

男根이란 음양에서 양성을 뜻하며 子孫昌盛 및 다산의 기능 자체가 性의 생리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원시농경 혹은 유목사회에서 가장 핵심적 요점인 이러한 개념은 구체적인 형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점차 발전하여 사람의 형상을 가진 phallicism의 구상화로 발전되었다.²⁴⁾

23) 김태곤(1983), 한국 민간신앙 연구, 집문당, p174-175.

24) 이종철(1982), 전계서, p54.

③까마귀 상징

유 형	위 치
돌탑을 원형으로 쌓음 + 나무새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제주시 이호 2동 골앗 마을에는 돌탑을 원통으로 쌓고 '+'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 이 나무새를 가마귀라 부르고 까마귀로 하여금 남쪽으로 들어오는 곳을 것을 "까악까악" 쫓아버려 재앙이 무서워 스스로 도망간다는 것은, 재앙을 미리 막는 의미로 나무새를 세웠을 것이다.

탑의 까마귀는 흉조가 아니라, 원래는 하늘과 신령과 관계가 있는 성스러운 새였을 것이다. 요컨대 까마귀는 고대 중국, 한국, 일본에서 '天神·日神'을 상징하고, 때로는 그 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신조이다. 19세기 시베리아 민속자료에서도 까마귀를 신조였음을 확인된다.²⁵⁾

다. 담과 거옥대의 내장물(內臟物)의 의미와 기능

담을 쌓아올리기 전에 마을에 따라서는 어떤 상징성을 지닌 내장물을 봉헌하기도 한다.²⁶⁾ 이것은 담과 거옥대의 의미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동시에 그러한 의미를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담과 거옥대 속에 넣은 내장물은 담과 거옥대의 성격과 마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위 치	내 장 물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순가락(25개)·밥주걱(2개)·무쇠술·오곡(五穀)밥.
제주시 내도동	푸는체·소지(燒紙)·화룻.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보습·벧·무쇠술·종이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무쇠술·벧.

25) 이필영(1990), 전계서, p329-330.

26) 강창언(1995), 전계서, p174-175.

3) 담과 거옥대에 나타난 조형성

가. 돌의 상징적 의미

인류의 생활과 문화는 돌의 이용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것은 생활용구 이외에 상징이나 주술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거석문화, 사원, 분묘, 제단, 돌무더기의 조형물이 대부분 石材를 이용한 것은 돌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원시시대의 종교 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간은 외계의 사물이나 사건들에게 상징을 부여하며, 거친 자연석이 있는 곳에 靈과 神들이 사는 곳으로 믿어왔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하게 됨으로서 그런 상징의 대상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²⁷⁾

돌은 대지가 만들어낸 것으로 영속적인 시간성과 부패하지 않은 힘이 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치료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숭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며, 개인에게 혹은 집단의 예배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돌들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단단하다는 자연적인 강인성과 영원성에 의해 신성시되며, 입석 신앙에 서처럼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며, 그것은 재난이나 마력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특정한 곳에 돌을 쌓거나 돌을 던지는 풍속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²⁸⁾

이는 나약한 인간의 神의 도움을 얻어 삶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흥사, 재앙을 막자는 바램이다. 不可抗力, 不確實性和 인간능력의 한계사항을 인식하려는 민중 심의가 투사된 세계관이었고 구원하려는 자세로서의 내적 지향과 자기창조의 표현이기도 하다. ²⁹⁾

이러한 풍속이 제주도 민중의 내적 의지로 표현된 양식은 담과 거옥대일 것이다. 담과 거옥대는 땅에서 얻어진 자연석에 의해 나타난 형태로, 토속신앙에 있어서는 땅은 신화적 공간이며 주술적인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석을 쌓아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담과 거옥대가 부여받음은 個 個人이 아니라 집단이 평화

27) Leslie A White(1997)문화의 개념, 일지사, p10-12.

28) 한용팀(1989), 토속신앙에 나타난 돌무더기 조형,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38-39.

29) 장윤식(1985), '신앙체계로서의 무속 「문화인류학 18집」, 정신문화인류학회, p72.

와 안녕이라는 생존과 관련된 공통된 목표 아래 자연석을 쌓아 집단의 공감을 얻음으로서 객관화에 이르고, 그 집단의 신앙적 대상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담과 거옥대의 조형성

자연이 물질적 토대가 되는 농경사회의 풍토는 긴밀한 연계 속에서 미의식을 형성한다.³⁰⁾ 육지부와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자연적 환경과 수난과 질곡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어려운 삶을 극복하며 살았던 제주島民들은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정화하여 풍자와 해학으로 순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소박한 그들만의 고유한 미를 창출했다.

예술의 기능이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공통된 문제의식을 둘레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어 표현한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그러므로 담과 거옥대는 단지 마을에 세워지는 조형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제주도민들의 현실세계를 실제화 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한 분명한 주제를 갖고 표현한 작품이요, 철학이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에는 안정감과 순박함, 그리고 숭고함이 있다.

담과 거옥대의 조형적 형태는 돌무더기의 그 자체와 돌무더기 위에 '나무새, '자연석', '돌하르방을 닮은 석인상' 등을 얹힌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담과 거옥대 위에 얹힌 조형물은 石材와 木材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과 거옥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상징적 의미도 전달한다.

조각의 기본적 요소로 매스(mass)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담과 거옥대의 돌무더기에서 그 풍부한 볼륨과 건축적인 구축력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위로 점차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며 돌무더기들은 마치 젓가슴과 같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 시각적인 안정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담과 거옥대를 이루는 데는 단단하고 보기 좋은 큰돌만 필요로 할뿐 아니라 작은 돌, 긴 돌, 밋밋한 돌, 둥근 돌, 넓적한 돌, 울퉁불퉁한 돌 등……, 각양각색의 돌들이 각각 제 기능을 다하면서 필요로 하여, 어떠한 외부적 자극에도 끄떡

30) 원동석(1985),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p31.

없이 견딜 수 있는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구축되어 진다.

제주도 돌의 주는 이미지가 인내, 침묵, 안정, 불패와 같은 것으로, 투박하리만큼 표출이 없는 제주도 사람들은 '돌과 더불어 자라 들처럼 산다'는 심의를 형상화하여 나타내었다.

그것은 엘리트계층의 세련된 제주에서 축조된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특별히 다듬어지거나 외형상 세련된 형태는 아니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돌 하나 하나에 상징을 부여한 신앙적 숭고미와 투박하리만큼 가식 없는 순박한 미가 적절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조소는 양감(量感)을 형성의 과정이고 심리적으로 충실한 중량감을 수반하여 양감과 공간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보다 깊은 의미를 형성해 간다.³¹⁾

즉 시각 공간과 촉각 공간의 구분 대상물에 대한 순수한 시각적인 이해로부터 부피감인 양감을 분리시키게 된다.

대상을 만져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들어보려고 하거나 또는 실제로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감각인 중량감을 터득하게 된다. 대상을 직접 들어보지 않더라도 대리석, 청동, 강철 등과 같은 재료의 대상적 무게에 관한 직감으로도 양감이나 중량감을 느낄 수 있다.³²⁾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의 돌무더기는 石材로 만들어져 있어 풍부한 중량감이 풍부히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담과 거옥대에 얹힌 석인상이 단순화된 형태에서 오는 굳센 선에서 유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주도 담과 거옥대에 돌무더기는 서낭당 것처럼 하나하나 쌓여져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돌무더기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치성의 목적을 위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얻어낸 돌무더기가 아니다.

제주도 담의 돌무더기는 그것은 처음부터 큰돌을 밑단으로 둥그렇게 구획한 뒤 그 안에 각양각색 안공이 거의 가하지 않는 돌을 채우고, 쌓아 원통, 원뿔 등의 형태로 돌무더기로 얻어낸 것이다. ³³⁾

그것은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에 의해 돌무더기 형태를 인위적 만들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주축이 되어 공동 조형활동을 통해서만이

31) 최병상,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p32.

32) Herbert Read(1984),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p77.

33) 강창언(1995), 전계서, p176

얻어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상징적 작품이다.

담과 거옥대의 돌무더기는 축조에 따른 돌은 돌의 채취가 쉽고, 운반이 용이한 지형이 비교적 완만하고 크고 작은 하천과 바닷가에 발달되어 있는 곳에 주로 밀집 분포되어 있고 또한 그 축조나 배열이 자연환경의 흐름과 일치되어 있는 점이다.

담과 거옥대는 자연이라는 환경에 세워진 조각이다. 여기에는 자연이라는 공간의 주위와 내부에 있는 입체적인 공간도 실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담과 거옥대도 형태, 주제, 내용이라는 조각의 속성을 갖고 있다. 형태는 물리적인 모양과 조각에서는 구조라 할 수 있는 구성을 모두 가리킨다. 주제는 조각이 의미하는 것이고 내용인 미적인 정서적 효과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적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4)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野外에 세워지는 조형물로서 자연을 파괴하는 침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적 가치를 그대로 따르며, 인공과 자연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조형적 요소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발담위에 거옥대와 담을 그대로 쌓아 발담의 線과 절묘한 질서의 이루며, 風多를 극복하기 위하여 石多를 이용한 제주도민의 삶의 지혜가 함께 돋보인다. 바닷가 암반 위에 담과 거옥대를 쌓아 밀물과 썰물의 때에 시간에 따라 시각적 조형미를 다르게 나타나고, 바닷가의 주변환경과의 어우러져 세련된 운취를 보여 준다. 35)

둘째 나즈막한 언덕에 보비로 쌓은 담과 거옥대에 하나의 자연적 지명을 부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성리의 담다운여,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방구령과 남제주군 가시리의 거옥대마루, 남제주군 구령곶의 가막동산, 북제주군 우도면 하고수동·영일동·주홍동의 가막동산 등이 있다.

셋째 우도면 주홍동·영일동·하고수동 담,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담, 한경면 두모리 담은 陰陽의 의미로 남녀 雙으로 쌓아 양을 상징하는 것에는 석상을 올려 뿐만 아니라 담 속에 내장물을 넣어 陰陽을 제주도민의 지혜에서 제주도 사람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음양의 조화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마조리 엘리엇 베블린(1986), 디자인 발견, 디자인하우스, p272~273.

35) 강창연(1995), 전계서, p179~180.

넷째 제주도의 '거옥대' 라는 의미는 거액(去厄)이라는 '액이 들어온다'는 뜻과 돌무더기 위에 '나무새', '자연석', '돌하르방을 닮은 석인상' 의 壘라는 인간의 만들어낸 조형적 형체를 통해 자연적 재액을 미리 막고자 하는 제주島民들 의지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징적 의미로 창출되어 島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다섯째 돌무더기 위에 얹힌 고수동의 거옥대의 나무새는 외부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힘에도 접촉하지 않는 순수무가결합의 새벽(0²)이라는 신성한 시간을 통해 돌무더기 위에 나무새를 꽂아 이를 통해 액막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여섯째 같은 돌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 담과 거옥대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시간, 날씨, 계절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담과 거옥대의 시각적 조형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野外에 세워지는 석조형물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자연이라는 野外적 무대조건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조형감각을 갖게 한다.

일곱째 담과 거옥대에는 탑을 쌓고 난 후 어떠한 의례와 어떠한 인위적인 설치물도 없다. 담과 거옥대를 인간의 순수한 목적에 의해 만지거나 올라가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재앙은 없다. 제주도민들의 담과 거옥대를 세움으로 자연적 재해 앞에서 액막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마을 사람들과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적인 조형물이며 제주도민의 순수의지에서 나타난 창조활동이다.

여덟째 마을에 세워진 담과 거옥대에서 느껴지는 건축적인 구축력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했던 그들 나름대로의 삶에 철학적 의지가 반영된 삶의 장소, 즉 땅이라는 야외에 세워 제주도민의 고유의 미를 돌이라는 매체를 통해 강하고 전달하고 있다.

크기에서 다소 위압을 느낄지 모르지만 담과 거옥대가 세워진 발담을 떠나 다음 발에서 느껴지는 마음에 안정과 편안함은 제주도 사람들의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에서 창조하는 線의 미학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인위적인 기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들만의 美學이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액막음이라는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절실한 주제를 가지고 표현한 제주도민의 삶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조형이다.

① 담과 거옥대에 위에 얹힌 石人像의 조형성

담과 거옥대에 표현된 석인상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두부(頭部)부분과 동체(胴體)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부 부분에는 인상을 표현했고, 동체 부분은 거의가 추상화되어 있다.³⁶⁾

담과 거옥대에 얹힌 石人像의 형상은 다양한 표현과 심상을 한 얼굴의 모습은 완전 무결한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되어지지 않고, 투박한 자연 그대로의 돌의 느낌을 표현한 소박하게 표현했다.

이러한 미는 척박한 자연에 순응하여 정직하고 협조적이게 살아가는 제주도 사람들의 순박한 심성과 역사·사회적 어려운 삶 속에서 스스로를 정화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심의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도에서도 화려한 장식이나 해부학적 세부조사 없이 꼭 필요한 線과 面과 空間만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해 버림으로 단순화를 추구하였다. 세부는 거의 간단한 연장으로 정교한 세공 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단순화한 작업에 익숙한 凡凡한 사람들이 線만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線刻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형태의 단순화에 따른 필연적인 형식이며, 또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룰 수 없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조면질 현무암과 다공질 현무암이 갖는 재질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도 담과 거옥대에 얹힌 석인상은 정면성을 위주로 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 대표적 형태로는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담,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의 거옥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거옥대,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거옥대가 있다.

②. 몸체

육지부의 石장승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몸체에는 아무런 글귀나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몸체는 네모난 것, 긴 것, 세모난 것, 넓직한 것

36) 방은영(1992), 장승에 관한 민간신앙과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p38.

등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각양각색의 몸체에 단순하게 형태만을 나타내었다. 답과 거옥대 위에 얹힌 석인상은 제주도 전역에 세워진 돌하르방의 형태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돌하르방에 비해 다소 왜소하다. 정면을 위주로 단순하고 투박하게 표현했고, 특히 두부를 강조하였다. 동체부분은 거의 생략이 초가 된다.

동체부분을 표현을 했더라도 팔이 표현되었으나 손가락의 형태가 생략된 것도 있다. 손가락은 다섯 개를 음각의 線으로 표현되어 마주 보는 것도 있으나 오른손 혹은 왼손이 위로 올라간 포즈(pose)를 취하며, 뭉가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㉞. 얼굴

답과 거옥대의 석인상은 얼굴形은 세모형, 삐툴이형, 달갈형, 둥근형, 네모형, 턱이 뾰족한형 등 여러 가지이다. 머리와 머리카락도 없는 민대머리가 있는 하면, 상투를 짜올린 형태도 있다. 그리고 모자를 쓴 형태도 있다.

얼굴의 눈, 코, 입, 귀 등 형태를 다 갖춘 것이 있는 반면 얼굴의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것도 있다.

㉟. 모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장승의 대부분은 사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답과 거옥대에 얹힌 석인상은 쓴 모자는 사모, 병거지 등이다. 제주도의 답과 거옥대에 얹힌 석인상은 모자를 통해 陰陽을 나타내고 있다.

㊱. 눈

눈은 보는 사람들 하여금 첫인상을 내보이는 안면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육지부 장승에는 눈이 더러는 세 개 혹은 네 개까지도 있는데, 답과 거옥대의 석인상은 눈이 모두 두개이다.

눈 끝을 약간 치켜 올라간 커다란 통방울 형, 음푹 패인 형, 눈을 주위를 선각으로 처리하여 나타낸 형, 양각의 눈에 안구를 음각의 線으로 묘사하여 눈을 크게 보이게 한 행인형 등이다. 답과 거옥대의 석인상에는 눈썹의 형태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

㊲. 입

답과 거옥대 위에 얹힌 석인상의 입은 대체로 무표정의 일(一)자형이지만,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거옥대 석인상의 입은 상층과 하층으로 잘 표현된 두툼한 형태가 이채롭고, 제주시 영평 하동의 거옥대 석인상의 입은 양각으로 입술을 표

현했다. 그러나 치아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①. 코

가늘고 긴 코, 양각으로 도출시킨 코, 코 주위를 선각으로 처리하여 나타낸 코 등, 석인상의 코의 형태는 다양하다. 육지부 장승에는 수염이 표현된 것이 있으나 제주도 담과 거옥대의 석인상에는 수염이 표현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가지각색의 모습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가식이나 형식미가 배제된 모습에서 따스한 인간적인 심성을 읽을 수 있으며, 정교하고 특별한 기술이 배제된 단순화된 조형성에서 소박한 원초적인 미의식을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답과 거옥대의 현지유형과 분포

1. 골왓마을 답

1) 소재지: 제주시 이호2동 골왓마을

2) 조사 내용

○ 명칭: 탑, 가마귀, 덕지답, 답(塔)

○ 수량: 5기(현존)

골왓마을 북쪽 경작지에 左右로 4기, 골왓마을 남쪽에 1기.

3) 건립 유래

이호동은 바닷가에 개(浦口)를 중심으로 오고락(=5개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밤에 갑자기 바다에서 강한 파도와 북풍이 불어와 모래가 집 전체를 덮쳐 집이 모래 구덩이에 파묻혀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선지 모래밭에서 사람의 핏(屐)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³⁷⁾

골왓에 '殺氣가 비추니까', '사각(凶氣) 비추니까', 이유없이 젊은 사람들이 좋지 못하고 많이 죽어 갔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어디가서(=심방, 지관에게 물어봄) 물어보니까, 마을에 들어오는 살기와 사각의 곳을 막아야만 이 젊은 사람이 좋고, 마을이 잘 이루어 副할 수 있다고 해서 답을 쌓았다고 한다.³⁸⁾

1938년 답(제주도 사람들은 탑을 답(塔)이라 지칭함)을 쌓을 당시 골왓마을에는 25호가구가 살았고 돌방애 (방아:재료- 돌로 만듦)³⁹⁾가 두개가 있었다고 한다.

가구 홑수의 25개의 순가락과 돌방애 두개의 우금, 五穀밥, 무쇠술을 준비하여 답을 쌓을 때는 미리 속에 무쇠술에다 오곡밥을 해 놓고, 그 위에 우금 2개(=밥주걱), 순가락 25개를 꽂고 그 위에 답(塔)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37) 심인(女/1917年/82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 면담, 제주시 이호동.

38) 이름 확인 미필(女/1917年/82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답 쌓을 때 직접참여, 이호2동.

이종철(1982), 전제서, p57.에서도 이호2동 골왓에 대해 채록되었다.

심인, 상계인

39) <돌>은 말(馬)의 濟州語, 연자매를 운용하는데, 馬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없혀진 말이며, <-방이 >, <-방애>는 곧 방아다.

김영돈(1974), "濟州의 연자매" 「문화재 제8號」, 문화재 관리국, p.77-78.

그리고 무쇠술은 깨지지 않고 흠집이 없는 것이었다. 흠이 난 술을 물을 때는 딸을 많이 낳는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한다.⁴⁰⁾

무쇠술에다 오곡밥을 해 놓고 우금, 손가락을 묻고 쌓았다. 富者로 살라는 뜻이며, 농경문화의 農耕神의 잔존도 함께 보여준다.

북쪽 경작지에 좌우로 쌓은 답 4기에는 음양의 기운이 있다고 한다.

쭈장한(=숫아오른 원뿔형 답)것은 陽을 상징하는 남자고, 함수룩한(=평평한 원뿔형 답)것은 陰을 상징하는 여자라고 한다.⁴¹⁾ 양을 상징하는 답1기와 음을 상징하는 답3기가 땅의 기운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4기의 답은 덕지답, 탑, 답(塔)라고 불린다. 답은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살기와 굶은 사각을 남자답(陽)과 여자답(陰)에서 내뿜어대는 상반대 음양의 양기가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재액을 미리 방취할 수 있다고 한다.⁴²⁾

골왓마을 남쪽에 답이 있다.

이 답은 골왓으로 들어오는 사각(凶氣)을 막기 위해, 세로로 대(丨)를 세우고, 一형의 새의 머리형태로 깎아 모양을 만들어丨에 관통하게 하여 '+'의 나무새를 만들어 답 위에 꽂아 이것을 '가마귀'라 부른다.

이 '가마귀'로 하여금 “까악 까악” 소리질러 굶은 사각을 쫓아 버려, 굶은 것이 스스로 도망가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가마귀'를 맨 위에 꽂아 재앙을 미리 막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⁴³⁾

답을 쌓는 일은 미리 마을 어른들이 날을 정하여祭를 지내고 마을 공동단위로, 남자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답을 쌓았으며 여자들은 단지 돌을 날라오는 일꾼에 불과 하였다고 한다.⁴⁴⁾

○형태

답1-제주시 이호2동 1529-2번지(그림1)

거친 다듬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잡석을 채워 넣어 형태의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여, 점점 폭이 좁아지는 3층 답을 이루는 원뿔형태로

40) 이름 확인 미필 (女/1917年/82세), 할머니 답4기의 밭의 다음 밭 남쪽에 위치한 할머니-이 할머니는 답을 쌓을 때 직접 참여, 직접면접법에 의한 개인면담, 제주시 이호2동.

41) ———, 상계인, 이호2동 답 쌓을 때 직접 참여한 할머니.

42) ———, 상계인, 이호2동, 답 쌓을 때 직접 참여한 할머니,

43) ———, 상계인, 이호2동 답 쌓을 때 직접 참여한 할머니.

44) ———, 상계인, 이호2동 답 쌓을 때 직접 참여한 할머니.

담 위에는 ‘ㄱ’형 돌이 놓여 있으며, 앞쪽으로는 이호동 바다와 뒤로는 골앗마을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다. 3개의 받이 만나는 지점의 받담에 위에 세워진 이 담은 골앗마을 북쪽 경작지에 좌우로 쌓은 4기의 담 중 가장 높이가 길다.

담2-제주시 이호2동 1529-2번지(그림2)

거친 다듬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를 하였으며 잡석채움으로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여 원통형을 이룬다.⁴⁵⁾ 담 위에는 3개의 돌이 삼각뿔 형태로 놓여져 있다.

담3-제주도 이호2동 1529-2번지(그림3)

거친 다듬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잡석채움으로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여 원통형을 이루고 쌓아진 담 위에는 자연석 놓여 있다.

담4-제주도 이호2동 1544번지(그림4)

거친 다듬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를 하였으며 잡석채움으로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여 원통형을 이룬다.

담5-제주도 이호2동 1414-2번지(그림5)

거친 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을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잡석채움으로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여 원통형을 이루고 담 위에는 ‘+’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

이 나무새를 ‘가마귀’라 부르고, 새의 부리는 남쪽을 응시하고 있다.

○관련내용: 담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재앙은 없다.

2. 내도동 담

1)소재지: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내도마을

2)조사 내용

○명칭: 담, 담(塔)

○수량: 1기(현존)

3)건립유래

내도동에 ‘새각(凶氣)’이 비취 마을로 굶은 것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것을 막고 강한 바다 바람으로 마을을 보호하기 위

45) 강창언(1997), 제주도민속유적, 제주도. p164

해 방법으로 쌓아올린 담 7기와 대 1기는 내도마을을 빙 둘러 세워 있었다고 한다.⁴⁶⁾

담 7기는 돌로 담(塔)을 쌓아 올린 것과, 돌담을 쌓고 위에 돌을 얹힌 것도 있었으며, 얹힌 돌의 의미는 따로 없으며 단지 보기 좋은 수려한 돌을 얹혀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 1기는 돌담을 쌓아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⁴⁷⁾

담을 쌓을 때 사용되는 돌은 바닷가의 먹돌, 속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바른 돌이 사용된 것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담7기와 대1기의 대부분 손실이 되었고,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담1기에 불과하다.

없어진 담 중 1기는(바른돌: 현무암사용 축조-없어진 담) 다른 담보다 가장 높이가 높아 바다에서 배일을 하거나, 낚시를 할 때 파도가 강하면 담 위에 등불을 켜서 내도동을 알리는 등대 역할도 했다고 한다.⁴⁸⁾

담을 쌓을 때는 미리 날을 정하여 祝을 고평한다. 담 속에 넣은 祝은 '할망하고, 하르방의 양조간을 담 속에 모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祝'은 음양(할망, 하르방)을 상징하며, 내도동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곳은 액을 음양의 내뿜어내는 상반적 양기로서 액을 미리 방쉬(防邪)할 수 있어 마을에 잘 되게 해 달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⁴⁹⁾

내도동 담은 마을 공동 단위로 남자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담을 쌓았으며, 슬과 노래 등 가무를 함께 즐겼다고 한다.

담을 쌓을 때에는 미리 푸는체(=키, 할망(女子)싱징), 종이, 화룻 등을 묻었는데, 담에 따라 묻는 종류가 달랐다고 한다.⁵⁰⁾

담에 묻었던 종이는 소지(燒紙)일 것이다. '소지'를 달리 '白燒紙 白原情'이라 하기도 한다. '백(白)'은 아무 것도, 곧 아무 글자도 들어 있지 않는 소지 그대로임을 뜻한다. 이로 미뤄보더라도 소지는 인간이 神에게 바램을 전달하는 뜻이 담긴 종이다.⁵¹⁾

46) 한계생 (男/1913年/86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제주도 내도동 515번지.

김석인 (女/1929年/7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제주도 내도동 517번지.

이애숙 (女/1935年/64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제주도 내도동 519-1번지.

47) 김석인·한계생·이애숙, 상계인.

48) 김석인, 상계인.

49) 한계생, 상계인.

50) 한계생, 상계인.

답이 손상이 될 경우 마을 단위로 미리 날을 정하여 마을 공동체로 다시 재 보수 하거나 쌓았다고 한다. 없어진 대부분의 답들은 4·3사건으로 성 축조와 도로개설로 인한 開明으로 없어졌다고 한다.⁵²⁾

○형태(그림6)

답은 바닷가의 먹돌을 사용하여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여, 원통형을 이루고 답 위에는 긴 현무암이 올려져 있다.

○관련 내용: 답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제앙은 없다.

3. 영평 하동 거옥대

1)소재지: 제주시 영평 하동

2)조사내용

○명칭: 거오기, 거우기, 거옥대, 돌하르방, 답, 탑

○수량: 1기(돌답은 현존하나 돌답 위에 얹힌 석인상은 분실)

3)건립유래

영평 하동은 설촌 당시 전못(前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마을 주거지역 남쪽에 답, 답, 거옥대, 거오기, 돌하르방, 거우기로 불리는 답 1기가 세워져 있다.⁵³⁾

영평 하동의 전못은 풍수지리상 남과 북이 높고, 또 취락이 형성되었던 곳은 분지로서 水口가 통하지 않아 신체장애자 많이 출생하며, 젊은 사람이 많이 죽고, 이유 없는 화재도 많이 발생하여 마을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의 남쪽 새가름으로 풍수지리설에 의해 이주하였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새가름으로 이주하여서도 이곳에 ‘殺氣가 비추니까’, ‘전염병인 호열자가 이 마을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갔고, 이유 없이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액을 막기 위해 답 2기

51) 고평민, 내고향의 향기-意識傳達 用具(제주도 民具論의 하나), p156-169.

52) 한계생·김석인·이애숙·상계인.

53) 박신생(女/1921年/78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영평하동.
유기생(女/1919年/8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영평하동 944번지.

54) 국립민속박물관(1997),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 p533-536에서도 영평하동 거옥대에 대해 채록하였다.

를 쌓았다고 한다.⁵⁵⁾

풍수지리상 영평 하동은 오방(午方-정남향)에 상여를 매고 가는 형상인 지세가 있고, 북서쪽은 虛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에 재앙이 막기 위해 남쪽에는 臺를 세우고 북쪽에는 塔을 쌓으라고 하여, 南臺北塔을 2기를 쌓았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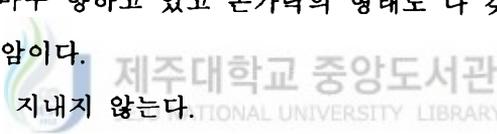
그러나 북쪽에 담 1기는 허물어졌고 남쪽에 대 1기는 담만 남고 위에 없힌 석인상은 1998년 3월 初에 분실했다.

○형태(그림7)

불규칙한 사각형태에 크고 작은 현무암으로 쌓고, 그 위에 석인상이 놓여 있다. 석인상의 얼굴형은 타원형으로 턱이 뾰족하고, 눈, 코, 입, 귀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머리의 형태가 없는 민대머리이다.

눈은 이중형으로 半陽刻의 조화로 된 행인형이고, 코, 귀, 입은 양각이다.

코는 직삼각형으로, 입은 두툼하게 표현되어 입술은 가운데가 살짝 벌어져 있다. 손은 가슴에서 마주 향하고 있고 손가락의 형태도 다 갖추고 있다. 석인상의 재질은 다공질 현무암이다.

○관련사항: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제주시 도두2동 물래물 마을 담

1)소재지: 제주도 도두2동 690-1번지.

2)조사내용

○명칭: 담, 담, 가마곶동산

○수량: 2기 (현존)

물래물 바닷가 포구쪽 발담에 위에 좌우로 2기

3)건설유래

도두2동은 '홀캐(新沙水)', '물래물(舊沙水)', '영물', '종이빌레(多好洞)' 이 마을은 제주 국제공항 확장공사로 없어져 버렸다.

55) 박신생, 상계인.

56) 강창언(1995), 전계서, p 210에서도 영평하동에서 거옥대를 채록되어 오방에 남대북담을 처음으로 기술하였다.

바닷가쪽이 허(虛)하여 마을로 굽은 액이 바닷가에서부터 들어온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좌우로 담2기를 쌓았다고 한다.⁵⁷⁾

○형태

담1-서(左)쪽에 위치한 담(그림8)

거친 다듬의 현무암으로 허튼충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루고 점점 폭이 좁아지는 원뿔형으로 담을 위에는 자연석이 놓여 있다.

담2-동(右)쪽에 위치한 담(그림9)

다듬어진 현무암으로 허튼충 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의 역할을 하여 폭이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마치 촛불을 연상하게 하는 원뿔형으로 담 위에는 두개의 자연석이 조화를 이루듯 마주보고 있다.

담이 세워진 곳은 북저남고의 지형으로 바깥쪽에서 관찰하면 담이 대단히 크며 안쪽에서 관찰하면 담의 바깥쪽에서 관찰하는 1/3도 안 될 만큼 작아 그 대조의 미가 돋보인다.

○관련사항: 담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5.인성리 알벵디의 거옥대

1)소재지: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2)조사내용:

○명칭: 거옥대, 돌하르방

○수량: 2기 (현존)

알벵디(=알벵디)에 左, 右로 각 1기.

3)건립유래

풍수지리상 인성리 마을 남쪽 즉 앞이 虛하여 잡귀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邪氣를 방지하기 위해 거옥대 4기가 세웠다고 한다.⁵⁸⁾

57) 강창언(1995), 전계서, p 192.에서 물래물에 대한 답사가 채록되어 있다.

58) 류병익(男/만61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342번지.

류병주(男/1931年/69세), 직접질문법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331번지.

이중철(1982), 전계서, p 58에서도 인성리 거옥대에 대해 채록되어 있다.

김영돈(1968), 전계서에도 인성리 거옥대에 대해 채록되어 있다.

개죽은물에 1기, 알뱅디에 2기, 머논에 1가 거옥대가 세워져 있었으나, 1950년 6·25발발 후 대정에 신병 훈련소가 건립되면서 훈련소 막사를 짓기 위해 마을에 돌을 다 채취했는데 이때 거옥대의 돌도 모두 다 채취했었다고 한다.⁵⁹⁾

(∩-----∩-----∩)

東 <-개죽은물 알뱅디 머논-> 西 (500m 내외)

그런데 거옥대가 없어진 후 마을에 모시(牛馬)가 자꾸 죽었고, 이유 없는 불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심방(=무속인), 점쟁이에게 물어봤으나 한결같이 거옥대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것을 막기 위해 인성리 사람들은 다시 거옥대 세우기로 하여 가구 한 호당 쌀 한 대씩 내어 마을 공동으로 쌓았다고 한다.⁶⁰⁾

그래서 인성리의 남쪽 알뱅디에 2기를 約 1963년경에 다시 축조하게 된 것이다. 거옥대를 축조한 후 마을에 牛馬가 죽지 않고, 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⁶¹⁾

○형태

바람이 많고 의지할 곳이 없는 허허벌판인 '뱅디'에 인성리의 주거지역 아래(=남쪽)에 있다고 해서 '알뱅디'인에 곳에 좌우로 각각 1기씩 총2기의 거옥대가 세워져 있다.

1. 인성리 497번지---동쪽(左): 그림10

거친 다듬의 현무암으로 허튼충쌓기를 하였으며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의 역할을 하여 원통형을 이루고 탑 위에는 石人像이 놓여 있다.

현무암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석인상의 얼굴형은 둥근 형으로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 입은 線刻으로, 눈, 코, 귀는 양각으로 처리했다.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손의 형태가 가슴에서 마주 향하고 있다.

2. 인성리 490-1번지---서쪽(右): 그림11

거친 다듬의 현무암으로 허튼충쌓기를 하였으며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의 역할을 하여 원통형을 이루며, 탑 위에는 石人像이 놓여있다.

59) 류병주(男/1930年/69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331번지.

류병익·류병주, 상계인.

60) 이인춘(男/1941年/59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1579번지.

61) 류병익·류병주·이인춘, 상계인.

석인상의 눈, 코, 입, 머리의 형태는 하고 있으나 귀의 형태가 생략되었다.

—(일)자형인 입과 눈은 線刻으로 가늘고 긴 코 양각으로 표현했다. 머리는 옛날 남자들의 집에서 쓰는 평정건(平頂巾)의 형태를 하고 있다.

팔은 양각으로 나타내어 오른팔은 위로, 왼팔을 아래로 향하나 손가락의 형태가 생략되었다.

석인상의 재질은 다공질 현무암으로 긴 사각형의 몸체의 윤곽만을 단순하게 나타내었다.

○관련내용: 탑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은 없다.

6.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담

1)소재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2)조사내용

○명칭: 담, 담, 돌하르방, 거북대

○수량: 3기(현존)

칠남밭에 2기,

화순 해수욕장 우측 절벽 썩근드리동산 1기

3)건립유래

화순리는 마을은 크게 東洞(=중동이라고도 함), 西洞, 下洞, 上洞으로 크게 나뉘는데 담은 첫동네(西洞)의 칠남밭에 2기, 썩근드리동산에 1기가 있다.

폭낭(=꽃나무)이 일곱개가 있다고 해서 칠남밭이고, 해수욕장 우측에 위치한 동산의 절벽이 돌이 剛하지 못하고 弱하여 물러서 쉽게 가루처럼 부서진다고, 돌이 썩고 삭았다는 뜻에서 썩근드리동산(썩다+돌+동산)이라고 한다.⁶²⁾

첫동네는 앞, 즉 마을의 남쪽인 미군(尾群)이 虛하고 弱하여 동네가 貧하고 窮지 못하다고 해서 이것을 막아 富하라고 칠남밭에 담을 쌓았다고 한다.⁶³⁾

62) 현계생(女/1913年/86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화순리 화순해수욕장 하동 거주.

이영순(男/1912年/87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화순리 화순해수욕장 하동 거주.

강태중(男/1919年/8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화순리 중동355-4번지.

63) 지순옥(女/1929年/7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화순리 서동 거주.

동동네는 땅이 기름져서 논농사를 짓어 부자였고, 셋동네 땅은 薄하여 논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난했다고 한다. 그래서 동동네는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셋동네는 상놈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동동네 사람들은 셋동네에 위세를 가지하기도 했다.⁶⁴⁾

그래서 옛날 동동네는 학자가, 셋동네는 힘이 센 사람 장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어느날 희린 좁쌀로 만든 2소리 술을 마시면서 '너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하며 서로의 힘 자랑을 한 양씨(상놈)와 홍씨(兩班)의 두 하르방은 큰 돌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힘내기를 했었다. 힘 좋은 양씨 하르방은 큰돌을 거뜰하게 뺄라서(=넘어 뜨렸다)이겼다고 한다.⁶⁵⁾

힘겨르기에 진 화가난 홍집하르방은 피로써 셋동네의 돌을 넘어뜨려 버렸다.

이러한 크고, 넓은 돌을 가리켜 동동네의 월라봉에 있는 것은 선비돌인 儒班石, 셋동네의 썩근드리동산의 거옥대앞에 것을 武班石이라 한다.⁶⁶⁾

셋동네의 돌을 넘어뜨린 후 셋동네의 힘센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모두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되찾기 위해 셋동네의 썩근드리동산에 답을 쌓고 석상을 올려놓았다고 한다.⁶⁷⁾

그러나 동동네의 홍집 하르방이 썩근드리동산에 답을 쓰러 뜨리기도 했고, 없애려고도 하였으나 셋동네의 사람들이 못하게 저지하였었다고 한다.⁶⁸⁾

동동네와 셋동네가 상사에 모여 회의하는 날이면 두 마을끼리 싸우기가 일수였다고 한다. 동네사람들은 셋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잘 되거나 셋동네에만 좋은 일이 생기면 답을 없애라고 했다고 한다. 답의 기운이 동동네의 좋은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⁹⁾

64) 강문팔(男/1923年/76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화순리 중동374-1번지. 이영순·한계생, 상계인.

65) 지순옥, 상계인.

66) 강창언(1995), 전계서, p177에서 화순리 거옥대의 유반석과 무반석에 대해 기술 하였다.

67) 이영순·한계생, 상계인.

68) 80세 가량의 할아버지,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화순 서동에 거주.

69) 이영순, 상계인.

○형태-1

일곱 개의 폭낭(=웃나무)이 있다고 해서 칠남밭인 곳에 좌우로 답2기가 세워져 있다.

-답1(그림12):右

거친 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잠석채움으로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여 점점 폭이 좁아지는 원뿔형으로 위에는 현무암으로 만든 석인상이 동쪽을 향하여 놓여져 있다.

석인상의 얼굴은 달걀형에 가까우며 童顔이다.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 눈과 입은 線刻,코와 귀는 양각이다. 머리는 병거지의 형태이다. 팔은 양각으로 나타냈으며 왼팔이 위에 오른팔이 아래에 위치 있으며, 손가락의 형태도 다 갖추고 있다. 석인상의 몸체는 직사각형으로 형태를 단순하게 나타냈다.

-답2(그림13):左

거친 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으로 허튼층 쌓기를 하였으며 잠석채움으로 형태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답은 원뿔형을 이루고 위에는 붉은 다공질 용암석이 놓여져 있다.

○형태-2

화순해수욕장의 모래 백사장 우측 절벽 암반 썩근드리동산에 답1가 세워져 있다.

-답3(그림14)

자연석의 길고 큰 암반석 위에 현무암을 이용하여 막돌 허튼층쌓기를 하여 4단을 이루고, 답 위에는 석인상이 동쪽을 향해 놓여져 있다.

석인상은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눈과 입은 음각이고, 귀와 코는 양각처리 했다. 머리는 병거지를 쓰고 있고, 팔은 묘사되지 않았다.

○관련내용: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7. 남제주군 무릉리 담

1) 소재지: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1리 암논

2) 조사내용

○명칭: 담, 담(塔)

○수량: 4기(현존)

암논 左右로 4기

3) 건립유래

마을 지리상 虛하여 모시(=牛馬)가 잘 죽고, 害가 많으므로 마을에 긋은 것을 막기 위해 방풍·방법으로 ‘암논’(물이 있는 곳)에 좌우로 발담 위에 4기의 담을 約 1910~1920년경에 쌓았었다고 한다.⁷⁰⁾

담(塔)을 쌓을 때 축을 메는 사람은 강씨 하르방이었다고 한다.

강씨 하르방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며,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⁷¹⁾

祝을 메는(祝은 제주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소상·대상때 위음) 일은 긋은 액과 맞서는 일이라서 매우 꺼렸다고 한다.

담 속에는 방사용으로 발갈이에 알맞은 쟁기의 벼, 보습(=보습)과 술, 강씨하르방이 맨 祝의 종이를 함께 묻고 쌓았다고 한다.⁷²⁾

대물림하는 농가의 농기에는 쟁기의 벼, 보습⁷³⁾이 있다.

男字는 밭:전(田)와 힘:력(力)의 合字이다. 力이란 밭을 가는 농기구인 보습(耒)의 상형이며, 田(밭)+力(보습)의 합자는 힘써 밭가는 丈夫의 모습이라고 『設文』은 말하고 있다.(丈夫也, 從田力, 言男子於田也.)⁷⁴⁾

70) 좌순아(女/1917年/8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대정읍 무릉1리.

좌오생(女/1916年/81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대정읍 무릉1리 3501번지.

71) 좌오생, 상계인.

72) 좌오생, 상계인.

73) 한국 본토의 보습들은 지역적 차이가 심하여 그 형태가 다양한 편이지만 제주도의 것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 보습의 너비는 12, 길이는 27cm인데 반하여, 한국 본토에서 주로 밭을 일구는데 쓰이는 극쟁이에 딸린 보습의 경우는 그 너비가 25-35, 길이가 43-44cm나 된다. 그러나 한국본토의 보습들은 제주도의 보습에 비하여 무려 배 이상이나 큰 셈이다.

고광민(1987), 제주인이 創出해 낸 物質文化는 어떤 것인가, 제주도, p92.

74) 김용옥(1989), 여자는 무엇인가, 통나무, p115-116.

보섭과 벗은 밭을 경작하는 경작자로서, 남자의 힘⁷⁵⁾을 답 속에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술을 통해, 벗과 보섭으로 밭을 경작하여 농사가 풍년이 되어 1년 내내 곡식 걱정 없이 술에다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富者로 살라는 뜻으로 술을 문었다.

술, 보섭, 벗은 제주도 주물문화 상징이며, 농경문화의 農耕神의 잔존을 함께 보여 준다.

그리고 축을 맨 종이는 인간이 신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전달의 염원이 담겨 있는 소지(燒紙)일 것이다.

○형태

-답1기(그림15)

거친 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과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루는 윗면이 평평한 원통형으로 위에는 石人像이 정면을 향해 놓여져 있다. 석인상은 자연석 현무암에 단순하게 정다듬으로 사모(紗帽)와 얼굴의 윤곽만을 표현했다.

-답2(그림16)

거친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과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원통형을 이루고 위에는 석인상은 남쪽을 향해 놓여 있다.

석인상의 얼굴형은 뼈틀이형으로 눈, 코, 입, 머리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귀의 형태는 생략되어 있다. 작은 실눈과 다물어진 작은 입은 음각, 코는 양각이다. 머리는 사모를 쓰고 있다. 석인상은 半身上으로 上半身만 표현되었고, 석인상의 재질은 다공질 현무암이다.

-답3(그림17)

거친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과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 원통형으로 쌓았고 위에는 석인상이 서쪽을 향해 놓여 있다.

석인상은 자연석 다공질 현무암을 정다듬하여 상반신만 표현했다.

얼굴형은 표현되었으나 눈, 코, 입, 귀의 형태는 없고 모자를 쓰고 있다.

-답4(그림18)

거친 다듬으로 이루어진 현무암과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루어진 원

75) 강창언(1995), 전계서, 무릉리의 답에 대해 채록하였고, 벗과 보섭이 남자의 힘을 상징한다고 기술하였다.

통형으로 쌓아진 담 위에는 상반신만 표현된 석인상이 동쪽을 향해 놓여져 있다. 석인상은 눈, 코, 입, 머리의 형태는 있으나 귀는 생략되었다.

입, 눈, 코는 線刻으로 나타내었다. 머리는 남자가 상투를 튼 정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

○관련내용: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재앙은 없다.

8. 성읍2리의 구렁뱀의 가마귀동산

1)소재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 2리 구룡동(九龍洞)

2)조사내용

○명칭: 가마귀동산, 가매기동산.

○수량: 1기(현존) - 구렁뱀이 남동쪽에 1기

3)건립 유래

중산간 마을 성읍2리 구렁뱀은 풍수지리상으로 육지 정시(地官)가 용머리 형태를 취했다고 해서 구룡동이라 했고, 활의 형태를 했다고 해서 활미가름(=활미가름)이라고 했다고 한다.⁷⁶⁾

구렁뱀의 남동쪽에 가마귀동산, 가매기동산 불리는 돌탑이 1기가 있다. 가마귀동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가마귀가 자주 담 위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⁷⁾

구렁뱀의 동남쪽에 음수룩한 (음록 배어 들어감) 곳에 위치한 활미가름(제주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았던 곳을 지칭하여 가름이라 한다.) 은 80년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활미가름에는 균용(=못된,사악한)한 도둑놈이 많이 태어났다고 한다. 이 기운은 활미가름의 남쪽 아랫마을에서 생겨난 이상한 기운이 모여 주중머채(도둑질을 하게 하는 나쁜 기운-盜氣)를 만들고, 이 주중머채가 활미가름에 비취 도둑질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 했다.⁷⁸⁾

76) 강영추(女/1917年/82세), 직접 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492번지

77) 강영추, 상계인.

강창언(1997), 전계서, p207에서 구렁뱀에 대해 채록되어 있다.

78) 강영추·상계인.

김규석(男/1936年/63세), 직접 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성읍1리 600번지

김영돈(1980), 성읍민속마을, 대원사, p32-34에서도 성읍2리 가마귀동산에 대해 채록되

구렁뱀으로 이주하여서는 균용한 도둑은 태어나지 않았으나 마을에 남자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구렁뱀은 풍수지리상 여자의 음부(陰部)에 해당하는 곳이 있어 남자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정시(=지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여자의 陰部에 해당하는 곳에 들답을 쌓아 防備하고 위에 남자의 性씨 상징하는 돌을 놓았다고 한다.⁷⁹⁾

답을 쌓은 후, 한 해에 세 동갑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⁸⁰⁾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답 위에 돌을 가끔 돌을 올려 놓다고 한다.⁸¹⁾

○형태(그림19)

가마귀동산(=가매기동산)의 구조는 형태를 이루고 버팀목 역할을 하는 현무암과 현무암 사이에는 거친 다듬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잡석을 넣어 원추형을 이루고 위에는 자연석이 놓여져 있다.

석상은 사다리꼴 형태를 한 직사각형의 석상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남자의 性을 상징한다. 가매기동산은 아직까지 한번도 무너진 일이 없다고 한다.

○관련사항: 답에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행위는 없다. 올라가도 재앙은 없다.

9.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거옥대

1)소재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시거니못

2)조사내용

○명칭: 거옥대

○수량: 1기 (현존하지 않음)

시거니못의 서쪽동산에 1기: (도로확장으로 約 1970년경에 파손)

3)건립유래

제주도를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精懸), 정의현(旌義縣)이라 하여 1416년부터

어 있다.

79) 허버트 리드(1984), 상계서, p14-15.

강영추 · 김규석, 상계인.

80) 강영추 · 상계인

81) 강영추 · 김규석 · 현봉진, 상계인.

1914년까지 세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

성읍1리에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 시거니못에 거옥대 1기가 세워져 있었다.

성읍1리의 정의현에는 한라산의 물줄기이며 천미천을 이루는 줄기인 시거니못과 울리니못의 물은 오랫동안 담수로 사용했었다고 한다.

성읍1리 남쪽으로 '긋은 것이 비추니까', '동네가 좋지 못하니까', 동네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시거니못의 서쪽 동산에 거옥대 1기를 쌓았었다.⁸²⁾

성읍1리 남쪽에는 아슴선이란 돌빌레가 있다.

아슴선은 돌만으로 쌓아진 돌동산으로 성읍1리의 긋은 것(厄氣)은 이 돌동산으로부터 발생된다고 한다.⁸³⁾

이 돌 동산의 긋은 것을 막기 위해 시거니못에 거옥대를 쌓았으나 1970년경 도로 확장으로 인해 없어졌다.

∩-----∥

西 <-거옥대 시거니못->東

○형태: 현무암으로 돌탑을 쌓고 위에 자연석의 돌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10.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거옥대

1)위치: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조사내용

○명칭: 거옥대

○수량: 2기(현존하지 않음)

물뚜왓에 1기, 안좌름에 1기

3)건립 유래

한라산 중산간 마을 가시리의 물뚜왓과 안좌름에 각 각 1기씩 거옥대 2기가 세워져 있었다.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에 매오름이 있다. 매오름의 殺氣가 마을의 물뚜왓 응

82) 김규석(男/1936年/63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600번지.

현봉진(男/1926年/73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노인회장.

83) 현봉진, 상계인.

덩이에 비취, 동네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므로 殺氣를 막기 위해 물뚜왓에 담을 쌓고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

가시리에 안좌름은 세화리 매오름의 매가 병아리를 잡아 먹는 꼴로 풍수지리상 邪氣가 들어온다 하여, 매를 쫓아 막는다는 의미로 '사람이 팔 벌려서 매를 다울리(=쫓는다)'는 形像인 '+' 나무새를 담 위에 꽂아 놓았다고 한다.⁸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거옥대^{거옥대}마루라고 한다. 자연의 동산에 인간의 만들어 놓은 거옥대를 合一하여 거옥대^{거옥대}마루다.

○형태

2기 모두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고 위에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 나무새의 나무는 비바람이나 자연적 재앙에 강한 古木을 사용하여 수백년간 지속될 수 있게 만들었으나 4·3사건 당시 없어졌다.

○관련사항: 담에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11.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 1리 거옥대

1)위치: 남제주군 신흥1리 방구령(防龜嶺)에 거옥대

2)조사내용

○명칭: 거옥대

○수량: 1기(현존하지 않음)- 방구령 동쪽 동산에 1기

3)건설 유래

남제주군 신흥1리의 방구령이 풍수지리상 震方(팔괘의 하나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한다.

진방이 虛하여 '소도 자꾸 죽으니까', '이유 없이 불도 자주 일어나니까', 부락에 일어나는 재해를 막기 위해 거옥대 1기를 세워져 있었다.

거옥대는 돌로 담을 쌓고 위에 2m이상 길다란 '+'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

거옥대는 방구령 동쪽에 동산에 세웠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옥대와 자연

84) 오국현(男/1934年/65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233번지.

의 일부인 동산인 ㄹ루가 습- 하여, 거옥대ㄹ루라는 또 하나의 지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4·3사건 당시 거옥대의 나무새는 없고, 돌탑은 후에 마을의 개명으로 없어졌다고 한다.⁸⁵⁾

○형태: 현무암으로 돌탑을 쌓고 위에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

○관련내용: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은 없다.

12. 신흥 2리 고수동 거옥대

1) 소재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고수동의 강녕이왓

2) 조사내용

○명칭: 거옥대

○수량 : 1기(현존)- 강녕이왓에 1기

3) 건립유래

중산간 고수동에는 마을 주거지역 남쪽 즉 앞에 어위도라는 하천이 있다.

풍수지리상 고수동의 하천의 방향은 사방(巳方)⁸⁶⁾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방이 터져 있으면 '젊은 사람이 좋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이 이유 없이 많이 죽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담을 쌓고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⁸⁷⁾

처음에 만들었던 나무새는 남자 어른 팔 둘레 만큼하고, 남자 어른 키 두 배 이상 되는 진한 붉은 색을 띤 접배나무였다. 접배나무로 새의 머리를 깎아 '一' 형으로 만들고, '丨' 형을 가운데로 관통하게 하여 접합시켜 나무새를 만들어 담 위에 꽂아 놓았다고 한다.⁸⁸⁾

나무새는 비바람이나 자연적 재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古木으로 만들어서 수 백년이 지나도 나무새의 수명이 영원하여, 마을에 安寧이 지속될 것을 바라는 옛

85) 오창윤(男/1933年/66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1리 603번지.

86) 24방의 하나, 정남(正南)에서 동으로 30도 됨.

87) 현재숙(男/1920年/79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신흥 2리 979-3번지 「4·3사건 당시 해안으로 내려가서 처음으로 고수동에 와서 재 건립한 분, 여기서 자라고 생활 하신 사신분」.

양인춘(女/1922年/77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신흥2리 979-3번지.

88) 현재숙, 상계인.

선인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1948년 4·3사건 당시 이 마을은 없어졌고, 이 마을 사람들은 해안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4·3사건이 해결이 되고 1959년부터 다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을 젊은 사람들도 좋지 못하고 이유 없이 많이 죽어 갔다고 한다.

그 까닭은 4·3사건 당시 땀감으로 사용하여 없어져 버린 액막음의 나무새 때문이었다고 한다.⁸⁹⁾

돌탑은 없어지지 않아 돌탑의 원형에 속대낭(=삼나무)으로 만든 '+' 나무새를 다시 만들어 꽂아 놓았다고 한다.⁹⁰⁾

액막음의 나무새는 솔쟁이(=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새벽(0~2시)에 꽂아 놓아야만이 방귀(防邪)⁹¹⁾가 된다고 해서 마을 남자 어른들만이 주축이 되어 돌탑이 있는 강녕이왓에 밤에 가서 나무새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⁹²⁾

○형태:(그림20)

거옥대가 세워진 강녕이왓 동편으로 작지물이 흐르고 있다. 거옥대가 세워진 지형은 동저서고로 그 차이가 심하다. 거친다듬의 현무암으로 막돌 허튼충쌓기를 하였고 속은 잡석 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루고 돌탑 위에는 삼나무으로 만든 나무새를 '+'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지금은 대('|'부분만 남아 있음) 일부가 손상이 있다.

○관련사항:거옥대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89) 현재숙·양인춘, 상계인.

강창언(1995), 전계서, p1203-204에서 고수동 거옥대에 대하여 채록되어 있다.

90) 현재숙, 상계인.

91) 가급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우마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에 고요하게 성장한 나무로 만들어야 효험이 있고, 그 나무 자체도 깨끗하고 반듯하게 자란 것을 취한다. 그리고 베어오는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神竿은 신성성, 초월성 때문에 잡귀 구축에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필영(1989), 한국숫대신앙의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원, p113-116.

92) 진복렬(女/1924年/75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남원을 신흥2리586번지.

현재숙, 양인춘, 상계인.

13.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거옥대

1) 소재지: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하동

2) 조사 내용

○ 명칭: 영등하르방, 거옥대, 들하르방

○ 수량: 1기 (현존)- 시흥리 하동 바닷가 갯벌에 1기

3) 건립 유래

시흥리 하동 바닷가에 돌탑 1기가 세워져 있다. 이 탑을 ‘거옥대’, ‘들하르방’, ‘영등하르방’ 등으로 불린다.

지금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시흥리 바닷가에서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서 재난이 생긴다고 했다.⁹³⁾

그리고 바다에서 날아와 떨어지는 날뿔과 이유 없이 불(火)이 생기는 헛불이 마을에 떨어지곤 하였는데, 이 불은 잘 꺼지지 않고, 끄려고 해도 계속 불꽃이 커져 이곳에서 저곳으로 떨어지자 마을에 화재가 잦고 망하는 집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防犯으로 바닷가에 거옥대를 세웠다고 한다.⁹⁴⁾

거옥대를 세움으로 마을의 마을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거옥대의 손상이 있을 경우 마을 공동으로 보수한다고 한다.

○ 형태:(그림 21)

거옥대 주위에는 낮은 사각형의 탑을 두르고 또 돌탑을 세워 안에 배치 하였다. 그리고 돌탑 아래쪽에는 직사각형 板石이 놓여져 있다. 다듬어진 직사각형과 사각형 현무암을 이용하여 8단을 쌓아올려 놓았고, 틈새는 깻들을 끼어 넣어 메워 원통형을 이르고 위에는 석상은 동쪽의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있다. 그리고 풍수지리상⁹⁵⁾ 종달리에 있는 동쪽 지미봉도 함께 웅시하고 있다.

93) 강분화(男/1923年/76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658번지. 진성기(1969), 제주도 민속-세시풍속, 제주도 민속연구소에서도 시흥리 거옥대에 대해 채록되어 있다.

94) 현옥순(女/1930年/69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72번지. 현계생(女/1930年/69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1067번지.

95) 풍수지리학상 시흥리는 지미봉과 성산봉이 그 위용은 대단한 바가 있지만 결코 마을을 감싸 안아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에 대하여 면(面)이 아니라 등을 돌린 배(背)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걸린다는 말이다. 이런 지세라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해오리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등하르방이 그것을 감

석인상의 얼굴은 둥근 타원형으로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 눈, 코, 귀는 양각이다. 두툼한 귀는 직각으로 묘사되어 세워져 있고, 입은 완만한 타원형으로 입술形도 있다.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된 턱을 받치고 있는 목은 두껍다. 어깨선은 오른쪽이 약간 올라가 있으며, 양손은 각 각의 측면에서 시작하여, 팔꿈치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아래로 하고 있으나 손가락의 형태는 생략되었다.

○관련 내용: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14. 용수리 답

1)소재지: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2)조사 내용

○명칭: 답, 매조자귀.

○수량: 2기(현존).

용수리 바닷가 화성물에 1기, 새원 방과제에 1기

3)건립유래

3포(용수포, 두모포, 관포) 중에 하나인 용수리는 어업이 발달한 해안지역으로 답2기가 세워져 있다.

용수리는 풍선(바람의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배)을 이용해서 어업에 종사했던 주민들이 자주 배 사고가 나자 어업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 防備로 세웠다고 한다.⁹⁶⁾

그러나 처음 세웠던 답이 허물어져(해방전-1945년 前) 마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가 자주 들어오고, 용수리 주민들의 바다에서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다시 답을 쌓기로 결정하였다.⁹⁷⁾

답을 쌓기 위해 마을 노인이 미리 날을 정하여祭를 지낸 후에 답을 마을 남

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최창조(1997) 한국의 자생풍수 I, 민음사, p319-321.

96) 이성림(男/1913年/86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박남국(男/1938年/61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4456번지.

97) 이성림, 상계인.

강창언(1995), 전계서, p37.

자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들답을 쌓고, 답 위에는 솔래기(병아리를 잡아먹는 매의 일종)형상인 자연석 석상을 올려놓았다고 한다.⁹⁸⁾

左右로 쌓은 이 답은 해방 후(약1946~1947년경)에 쌓은 답이다. 답 위에 석상에 매가 자주 앉자 있어서 답을 매조자귀라고도 한다.⁹⁹⁾

○형태

-답1기(그림22) 새원답-바닷가 右

바닷가 암반 위에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으며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 원통형으로 솔래기 形象의 자연석이 위에 올려져 있다. 석상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답2기 (그림23) 화성물담-바닷가 左

바닷가 암반 위에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으며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 원통형으로 답 위에는 솔래기 形象의 자연석 석상이 놓여 있다. 석상은 서쪽 향하고 있다.

○관련내용: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은 없다.



15.한경면 두모리 담

1)소재지: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2)조사내용

○명칭: 담 (지명에 따라 코짓개의 숫담, 앞개의 암담, 검머덜의 암담)

○수량: 검머덜의 암담 1기(총 3기 중 1기만 현존).

|| ----- || ----- ||

<-東 검머덜의 암담 앞개의 암담 코짓개의 숫담 -> 西

3)건립유래

한경면 두모리는 바닷가 마을로, 마을이 虛하여 아귀(餓鬼)가 들어오니까, 이러한 재앙을 미리 예방하여 마을이 잘 되어, 마을 운도 좋으라고 해안가를 따라 총 3기의 담을 세웠다고 한다. 100)

98) 이성립, 상계인.

99) 이성립, 상계인.

陽(남성)을 답 1기와 陰(여성)을 상징하는 답 2기가 바닷가에 左右로 쌓아져 있었으나 답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검머덜의 암답 1기에 불과하다.

코깃개의 답 1기는 陽을 상징하는 숫답으로 점점 폭이 좁아지게 들답을 쌓고 위에는 주장한 상투든 것 같은 形象의 돌를 하나를 꽂아 놓았다고 한다. 101) 그리고 陰을 상징하는 검머덜 답 1기와 앞개 답 1기는 평평하게 들답을 쌓고 위에는 아무런 것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한다.

陽을 상징하는 숫답이 원뿔형이라면 陰을 상징하는 암답은 원통형에 가깝다고 한다. 約1936~1938년경 쌓은 이 답은 이미 날을 정하여 祭를 지낸 후 남자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공동으로 쌓았다고 한다.102)

○형태(그림24)

자연석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허튼층 쌓기로 답을 쌓고 잡석채움으로 버팀목 형태를 원통형으로 이룬다.



16. 전담동 답

1.소재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2리 전담동

2.조사내용

○명칭: 탑, 답(塔)

○수량: 2기(현존)

전담동 좌우 소나무밭에 1기, 참남동산에 1기

3)건립유래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 2리에는 전담동의 참남동산과 소나무밭에 각 1기씩 총 2기의 답이 세워져 있다.

동네가 '虛하니까', '바닷물의 굵은 것(厄)이 마을에 비추니까'103). 마을로 잡귀

100) 김복동(女/1928年/71세)한경면 두모리 2655번지.

강창언(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지, p283에서 두모리탑에 대한 채록이 되어 있다.

101) 김복동, 상계인

102) 김복동, 상계인.

103) 이순희(女/1924年/75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접,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187번지.

홍순여(女/1928年/71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접,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183-3번지.

가 들어와 마을이 좋지 못하고, 젊은 사람도 수명이 짧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虛한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돌담 2기를 左右로 쌓았었다고 했다.¹⁰⁴⁾

陰을 상징하는 암담(여자, 女塔)과 陽을 상징하는 숫담(남자, 男塔)이 좌우로 각 각 1기씩 쌓아져 있다.

음양을 구분하는 2기의 담은 陽을 상징하는 男塔에는 상투리¹⁰⁵⁾ 모양을 한 돌을 놓았고, 陰을 상징하는 女塔에는 아무것도 올려 놓여 있지 않았다.

처음 담을 쌓을 때는 방사용으로 農耕文化를 상징하며 農耕神의 잔존을 보여주는 잠배(=벧)와 술을 묻었다고 한다.¹⁰⁶⁾

밭갈이에 알맞은 쟁기의 벧으로는 밭을 갈고, 耕作하는 耕作者로써의 남자의 힘을 담 속에 넣었고, 술은 1년 내내 농민들이 곡식(五穀) 걱정 없이 밥 잘 해먹을 수 있게 부자로 살라는 뜻으로 방사용으로 넣고 쌓았다고 한다.

담1기(남쪽-男塔)는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새로 담을 쌓았다. 이 담을 쌓을 때는 남자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공동으로 담을 쌓았다. 이 담에는 농민들이 1년 내내 밥 걱정 없이 베풀리 부자로 살라는 뜻에서 술을 묻었다고 한다.¹⁰⁷⁾

○형태

-담1기: 남쪽에 위치한 담(그림25)-左

소나무밭에 쌓아진 담은 현무암으로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 원통형으로 담 위에는 자연석 석상이 놓여져 있다. 담 속에 술을 묻고 쌓은 이 담은, 陽을 상징하는 男(숫담,남자)탑이다.

-담2기: 북쪽에 위치한 담(그림26)-右

참남동산에 위치한 담은 비교적 평탄한 경작지의 밭담에 거친 다듬인 현무암으로 먹돌허튼층 쌓기를 하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원통형으로 이루어진다. 이 담은 陰을 상징하는 女(여자,암담)탑이다.

○관련사항: 담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고문호(男/1936年/63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접,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246번지.

104) 고춘삼(男/1929年/7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183-3번지.

105) 고문호·이순희·고춘삼·고문호·홍순영, 상계인.

강창언(1997), 제주도민속유적, 제주도.p181-182에서 전담동 담에 대해 채록되어 있다.

106) 고춘삼, 상계인.

107) 고문호·고춘삼, 상계인.

17. 고성리 답

1) 소재지: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2) 조사내용

○명칭: 답, 답(塔)

○수량: 1기 (현존)

알잣지소에 1기

3) 건립유래

중산간 마을 고성리에는 고려시대 김통정 장군의 몽고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삼별초의 항쟁이 살아있는 항몽유적기가 있다.

고성리에 전염병 즉 호열자(=콜레라, 호역(虎疫))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방수(防邪)로 답을 쌓았다고 한다.¹⁰⁸⁾

답은 알잣지소의 1기, 진군마루의 답다운여의 1기, 손들왓 1기 총 3기가 고성리에 쌓아 있었다고 한다.¹⁰⁹⁾

그러나 지금 현존하는 것은 고성리 하동의 하천에 알잣지소의 1기뿐이다. 없어진 2기의 답은 4·3사건 후 중산간 마을의 성 축조와 도시의 開明으로 인한 도로의 개설로 없어졌다.

고성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당이 없다.

|| ----- ∩

西<-알잣지소 거옥대->東

○형태:(그림27)

고성리의 마을 주거지역 북쪽에 알잣지소의 하천의 물줄기 동쪽변에 있다. 거친다듬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막돌 허튼층쌓기를 하였고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원통형으로 이룬다.

○관련사항: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답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108) 고두만(男/929年/68세) 직접 질문법에 의한 질문법, 고성리464번지.

이름 미상(女/1936年/61세) 직접 질문법에 의한 질문법, 고성리1324번지.

109) 고두만 · 이름 미상, 상계인.

18. 신흥리 답

1) 소재지: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2) 조사내용

○ 명칭: 탑, 큰개탑, 답(塔), 오다리답

○ 수량: 2기(현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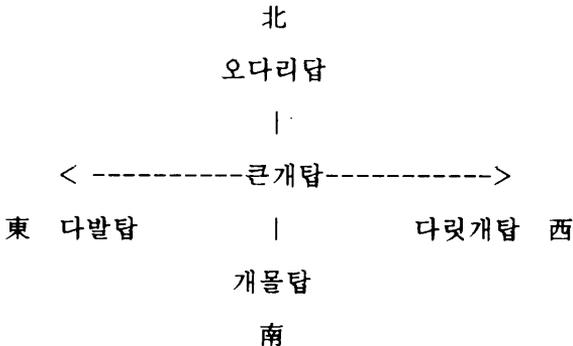
신흥리 바닷가 큰개에 1기, 북서쪽 오다리 1기

3) 건립유래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는 유난히 바닷가 바위빛이 검고, 마을의 북쪽인 바다에는 포구가 있는 옛개라 불리는 해안가 마을이다.

신흥리에 '살(煞)이 비추니까', 살을 제거하고 막음으로 쌓은 除煞塔이다. 여기서 煞이란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곳은 악귀이다.

신흥리 마을에는 煞을 제거하고 막기 위해 큰개탑을 중심으로 오방(五方)으로 오다리답, 다릿개답, 다발답, 개몰답 총 5기의 답을 쌓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답은 마을 북쪽 바닷가 포구의 큰개에 1기와 오다리에 1기뿐이다. 바닷가에 쌓은 2기의 답은 쌓은 후 큰 파도와 강한 바람에도 한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두기의 답은 마주보고 있으나 陰과 陽을 상징하는 女塔과 男塔 의미로 답을 지칭하는 바는 없고, 2기의 답은 한쌍의 의미도 없다고 한다.



○ 형태

- 답1:(그림28)

신흥리 바닷가 포구에 답다운것(=탑 쌓은것)은 큰개의 포구 밖 검은 암반, 개깃바위 위에 막돌 허튼층 쌓기를 했으며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원통형으로 이룬다.

-답2:(그림29)

신흥리 바닷가 북서쪽의 소금을 구웠다는 소금밭이 있는 오다리에 담 1기를 쌓았다. 거친다듬의 현무암으로 막돌 허튼층쌓기를 했으며 잡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원통형으로 이룬 탑 위에는 돌이 바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관련사항: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제보자: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을 통해 두 분의 할머니와 한 분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확인 미필.

19. 하고수동의 담

1)소재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우도리 하고수동

2)조사내용

○명칭: 탑, 액담(厄塔), 가막동산

○수량: 2기(현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바닷가에 좌우로 각 각 1기

3)건립유래

하고수동(下古水洞)은 옛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하고수동에는 좌우로 각 1기씩 2기의 담이 있다.

하고수동이 마을을 이루고 살는데 마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유없이 '사람이 하영(=많이) 죽으니까', '젊은 사람이 하영 죽으니까', 이러한 곳은 것을 막아 마을을 잘 이루고 살라고 담을 쌓았다고 한다.¹¹⁰⁾

담은 두동산(=탑을 지칭하는 말)을 함께 모아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액막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陽을 나타내는 男子(=하르방,숫놈,서방) 1기 담과 陰을 상징하는 女子(=할망, 암놈, 각시) 담 1기를 함께 쌓았다고 한다.¹¹¹⁾

담 2기는 따로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한쌍의 음과 양의 의미로서 마을에

110) 강창언(1997), 전계서, 하고수동 담에 대한 채록이 되어 있다.

우봉호(男/1921年/78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우도면 하고수동 1287번지.

고창선(女/1931年/68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우도면 하고수동 1182번지.

111) 우봉호·고창선, 상계인.

들어오는 액을 막아 주는 탑이다.

이 탑을 액탑, 답, 탑, 가막동산이라고 부른다. 탑을 가막동산¹¹²⁾이라 부르는 것은 탑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다.

탑을 처음 답을 쌓을 때는 미리 날을 정하여祭를 지낸 후 탑을 쌓았으나 約 20년전에 마을 공동으로 탑을 수리 했다고 한다.

○형태

답1기-북쪽에 위치한 답(右): (그림30)

바닷가 암반 위에 쌓아진 탑은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 원뿔형으로 위에는 타원형의 붉은 다공질 자연석이 놓여 있다.

이 탑은 陽을 상징하는 남자(하르방,서방)탑이다.

답2기-남쪽에 위치한 답(左):[그림31]

바닷가 암반 위에 쌓아진 탑은 거친 다듬의 현무암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 원통형으로 위에는 석상이 놓여져 있다. 이 탑은 陰을 상징하는 여자(할망,각시)탑이다.

○관련내용: 탑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해가 아무런 재앙이 없다.

20.주흥동 답

1)위치: 북제주군 좌우읍 우도면 '주흥동'

2)조사내용

○명칭: 답, 답(塔), 가막동산

○수량: 2기(현존)

주흥동 바닷가 포구에 좌우로 각 각 1기

3)건립유래

바닷가에 위치한 주흥동은 풍수지리상 뱀(巳)의 형국이다. 뱀의 형국으로 뱀의 꼬랑덩이(=뱀의 꼬리)가 좌우로 폴락폴락 움직임은 돈이 빠져나가서 동네가 가난하고, 사람이 빠져나가서 남자가 短命한다고 한다.¹¹³⁾

뱀의 꼬리 부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이것을 막아, 마을에 평화와 안

112) 우봉호,상계인.

113) 차임화(女/1935年/64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우도면 주흥동 969번지.

녕을 피하기 위해 탑 2기를 쌓았다고 한다.¹¹⁴⁾

탑은 左右로 각 각 1기씩 있다. 북쪽에 위치한 탑은 陰을 상징하는 여자(할망)탑, 남쪽에 위치한 탑(塔)은 陽을 상징하는 남자(하르방)탑으로 陰과 陽의 조화를 나타낸다.

탑은 설촌 당시 (100~120년전) 남자 어른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 공동으로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의 도시화 정비사업으로 인한 開明으로 탑이 허물어졌다.

탑이 허물어지자 남자들이 50-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수명이 짧아져서 남자들만이 단명하게 되었다고 한다.¹¹⁵⁾

탑이 없어져서 좋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나자 탑을 쌓은 옛 조상들의 價値와 意味를 확인하게 된 마을 사람들이 탑의 뿌리가 남아있던 그 자리에 5~6년 전에 서로 마주보게 다시 탑 2기를 쌓았다.¹¹⁶⁾

○형태

탑1-주흥동 포구 서쪽에 위치한 탑:(그림32)

방파제를 연결하는 길목에 현무암으로 막돌허튼층 쌓기와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역할을 하여 점점 폭이 좁아지는 원뿔형이다. 탑 위에는 아무런 석상이 놓여있지 않으며 이 탑은 陰을 나타내는 女塔이다.

탑2-주흥동 포구 동쪽에 위치한 탑:(그림33)

바닷가에 큰 암반위에 거친다듬의 현무암으로 허튼층 쌓기와 속은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 역할을 하여 원통형으로 위에는 삼각뿔 형태의 자연석 석상이 놓여져 있다. 이 탑은 陽을 나타내는 男塔이다.

○관련사항: 탑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114) 차임화, 상계인.

115) 차임화 · 상계인.

116) 김영택(男/1935年/65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우도면 오봉리 동장. 차임화, 상계인.

21. 영일동 답

1)위치: 북제주군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2)조사내용

○명칭: 탑, 가막동산, 답(塔)

○수량: 2기 (현존)

남서쪽 경작지에 1기, 바닷가 포구에 1기

3)건립유래

이 마을 바닷가 동쪽으로 굽은 것(厄)이 들어오므로, 동네가 운이 좋지 못하여 동네에 굽은 일을 자주 생긴다고 하여, 이것을 防備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한다.¹¹⁷⁾

이 답은 雙으로 답을 쌓아야 만이 동네의 운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서, 陰과 陽을 상징하는 한쌍의 의미로 서로 답을 마주보게 쌓아 동네가 번영된다고 한다. 답이 허물어지면 동네가 좋지 못하다고 답에 손상이 있으면 마을 공동으로 보수를 한다고 한다. 답은 100~120년 마을이 설촌될 당시 마을 공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형태

-답1: 조일리 영일동 경작지 右:(그림34)

남서쪽 경작지, 보리밭에 돌담에 세워진 답은 답2보다 높은 지대에 있다. 현무암으로 막돌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원통형으로 이룬이 답은 陰을 나타내는 여자(할망)답이다.

-답2: 조일리 영일동 바닷가 포구 左:(그림35)

답이 쌓아진 지대는 北高南低로 바닷가 자연석으로 막돌 허튼층 쌓기를 하였고 잠석채움으로 버팀목과 형태를 이룬다. 형태를 이룬 돌담 위에는 사각형의 놓여 있는 陽을 나타내는 남자(하르방)답이다.

답은 밭담 경작인 안쪽은 바깥쪽 보다 1/3정도로 작게 보이는 형태적 대조미가 있다. 태풍으로 허물어진 것을 마을에서 재보수 하였다.

○관련사항: 답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 올라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다.

117) 고연행(女/1929/70세), 직접질문법에 의한 개인면담, 북제주군 우도면 조일리 영일동.

IV. 결론

제주도라는 척박한 자연적 환경, 수난과 질곡의 어려운 역사·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이루어진 담과 거옥대는 민간 토속신앙과 풍수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 상징미술로서 집단의 공감을 형성한 민속미술이다.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마을이 虛하거나 弱하여 굶은 것이 들어온다거나, 날 불·헛불, 煞, 사각(凶氣), 殺氣 등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는 곳에 세우는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공동체 문화의 상징적인 석조형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담과 거옥대의 현지유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본다.

- ① 담과 거옥대는 형태상 돌무더기 그 자체의 石磧 단독형과 돌무더기위에 '나무새', '자연석', '돌하르방을 담은 石人像' 등을 얹힌 石磧 복잡형 등 크게 두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도의 담과 거옥대는 석적복합형이 주를 이루는 독특한 만한 지방형을 보여준다.
- ② 마을의 액막이와 풍농을 위하여 세우는 일반 담과 거옥대와 풍수지리학상 虛하거나 弱한 지세에 세우는 담과 거옥대가 있다.
- ③ 담과 거옥대는 '담', '거오기', '가막동산', '거우기', '돌하르방', '가매기동산', '담', '까마귀', '가마귀동산', '액담', '거옥대', '가마귀', '메조자귀'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운다.
- ④ 담 속에 넣은 陰陽이 상징하는 바는 陰과 陽에서 내뿜어 내는 상반된 양기로 마을에 들어오는 재액을 미리 막고자하는 힘을 보여준다.
- ⑤ 담과 거옥대를 쌓고 난 후 담과 거옥대가 무너지기전에는 어떠한 儀禮도 행하지 않으며, 부속물도 설치하지 않는다. 순수한 목적아래 만지거나 올라가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제앙은 없다. 담과 거옥대는 남자어른들이 主軸이 되어 마을 공동으로 쌓는다.
- ⑥ 담과 거옥대에 돌무더기 위에 얹힌 나무새는 아무런 잡귀의 침범이 없는 순수불가결의 신성한 시간(0~2)에 나무새를 쫓아야 만이 나무새가 액막음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제주도 답과 거옥대는 다양한 크고 작은 돌로 쌓아 올려 축적된 돌무더기는 땅으로부터 위로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어떠한 외부적 자극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각적 안정감, 꼭 필요한 空間, 線, 面을 단순하게 처리했고, 外的 표현보다는 內的 표현에 치중하여 島民들의 척박한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으로 어려운 삶을 소박하고, 협조적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제주 사람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美를 돌에 표현했다.

陰陽의 의미로 남녀 雙으로 쌓아 양을 상징하는 것에는 돌탑 위에 자연석 혹은 석상의 형체를 올려놓은 것, 새를 닮은 것을 맨 위에 올려놓은 것, 오래된 古木을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것 등, 자연에 순응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美를 구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답과 거옥대의 돌무더기 위에 얹힌 석인상은 단순한 mass에 頭部부분을 강조했고 부분적으로 線刻처리로 陰刻과 陽刻의 조화를 이룬다.

투박하고 가식 없는 소박한 원초적인 미와 시각적 안정감이 돋보이는 조형적 형태로, 풍수사상과 음양오행론에 관련을 맺는 제주도의 답과 거옥대는 자연과 환경의 어우러져 野外에 세워지는 환경 친화적인 석조형물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답과 거옥대의 미술사적 의의를 발견하고 답과 거옥대 연구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수정하여 앞으로 나아가 한국 미술 속에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한국문헌

<단행본>

- 강창언(1997),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 강창언(1996), "방사용 탑-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 박물관」, 남제주군지
- 강창언(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제주대학교 박물관」, 북제주군.
- 오성찬(1992), 제주도속지명 사전, 민음사.
- 진성기(1979), 제주도 민속의 멋(1), 열화당.
- 진성기(1979), 제주도 민속의 멋(2), 열화당.
- 진성기(1969), 제주도 민속, 제주 민속 연구소.
- 濟州道(1998), 제주도 문화재, 濟州道 「증보판」.
- 제주도 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고광민 (1987), "제주인 創出해 낸 物質文化는 어떤 것인가", 제주도.
- 국립민속 박물관(1997),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부 제주의 석상.
- 김용옥(1989), 여자는 무엇인가, 통나무.
- 金碩鎭(1993), 周易講解, 대유학당.
- 김두하(1990), 벽수와 장승-자료와 해설, 집문당.
- 이종철 외3인(1988), 장승, 열화당.
- 강영환(1992), 생활어 사전, 한길사.
- 임동권(1975), 한국의 민속,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 이필영(1990), "마을공동체의 솟대신앙" 「역사 속의 민중과 민속」, 이론과 실천.
- 이필영(1994),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 김영돈(1980), 제주 성읍마을, 대원사.
- 김두하(1991), 장승과 벽수, 대원사

<論文>

- 강창언(1995), 방사용-답 「濟州道史研究」, 제주도사연구회
- 조윤득(1987), 제주 石像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세덕(1993), 환경조각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손은경(1993), 한국 솟대와 Brancusi 작품에 나타나는 수직과 상승의 상징성 비
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종철(1982), 장승信仰에 關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방은영(1992), 장승에 나타난 민간신앙과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재환(1994), 장승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류종목(1993), 제주도 풍수설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영민(1991), 풍수지리학을 통하여 본 環境觀,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항변(1987), 음양에 기초한 조각 작품제작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학립(1989), 한국토속신앙에 나타난 들무더기 조형,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연화(1988), 한국 장승의 諧謔美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필영(1989), 한국 솟대 신앙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소기호(1994), 토속신앙에 표현된 장승의 조형,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현정숙(1989), 돌 형태의 image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용방(1994), 제주도 들하르방의 미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其他文獻>

- 현용준(1963), "제주의 석상" 「제주도 제8호」, 제주도.
- 현용준(1975), "제주도의 기층문화" 「문화인류학 제 7집」, 한국문화 인류학회.

- 김영돈(1969), "삼다의 철학 제1장 石多" 「제주도 제37호」, 제주도.
- 김영돈(1974), "제주의 연자매" 「문화재 제8호」, 문화재 관리국.
- 주장현(1993), "마을의 지킴이 한국 마을 문화의 상징 장승"
「GEO 5~6 격월간」, 두비인터내셔널.
- 이종항(1983), "풍수지리" 「계간: 정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길부(1983),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의미" 「계간: 정신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동권(1963), "민속학에서 본 제주도" 「제주도 8호」, 제주도.
- 이종철(1986), "장승의 現地類型에 관한 試考" 「문화 인류학 제18집」,
한국문화 인류학회.
- 이종철(1989), "전북의 당산입석과 남근석 신앙考" 「문화재 제22호」,
문화재 관리국.

<외국서>



- 허버트 리드(1984),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 村山智順(1937), 部落祭, 조선총독부.
- 秋葉隆(1937), 조선문화에 就하여, 조선문화의 연구.

<Abstract>

Study on "Dop" and "GeukDae " in Cheju Island

Chung eun-sun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ang-hee



"Dop" and "Geukdae" is set up here there in village of Cheju Island

To protect cattle, property and human life, "Dop" and "Geukdae" is set up in village which harmfulness is generated or evil omen is appeared due to be weak and feeble in view of geomancy, and it's a symbolic modeling of community culture which group's consensus is made. "Dop" and "Geukdae" is not elite creation and not personal-oriented one, and it's a folk art which creates public sentiment by joint modeling activity, and the crude, natural, and simple beauty and security sense are harmonized suitably.

The form of "Dop" and "Geukdae" is characterized as a pile of stones with a figure, made out of wood or stone ,on of top of that.

In addition it is variously called "GrmaguitDongsan", "top", "dop", "Gamaegui", "GamakDangsan", "GeukDae", "Dollhirubang", "Geogui", "Kamagui" "Majojagui", according to each region.

Recently, it has been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owing to the development

of western scientific cultivation, therefore it's true that people look away "Dop" and "Geukdae" of Cheju under the reason of superstitious and unscientific one, and the study on its cultural value is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are all "Top" and "Geukdae" in Cheju, and it's to study around the data 35 "Top" and "Geukdae" is existed in 21 region through site survey, based on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literature from January 1998 to August 1998.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nsciousness on modeling and beauty of Cheju "Dop" and "Geukdae", after understand its religious system, its has modeling nature that the natural and simple beauty and visual security sense are appeared properly. In particular, the head part of the stone man sculpture on "Dop" and "Geukdae" is emphasized, and engraving and embossed carving are harmonized by the simple shape and the partial line.

Cheju "Dop" and "Geukdae" based on geomagnetic theory and "Eum-Yang-O-Hang" theory, is set outdoor suit with natural environment, and I could also study the environmental affinity modeling factors from it.

I expect that Cheju "Top" and "Geukdae", people have looked away during that time, will be evaluated again in the new sight, through makes to understand Cheju "Dop" and "Geukdae" as a genre of Korean Art History and its artificial meaning highlighted by this study.

참고도판

- <도1>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답
- <도2>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답
- <도3>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답
- <도4>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답
- <도5> 제주시 이호2동 골앗마을 가마귀
- <도6> 제주시 내도동 답
- <도7> 제주시 영평 하동 거옥대
- <도8>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답
- <도9> 제주시 도두동 몰래물 답
- <도10>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거옥대
- <도11>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거옥대
- <도12>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답
- <도13>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답
- <도14>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답
- <도15>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답
- <도16>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답
- <도17>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답
- <도18>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답
- <도19> 남제주군 성읍2리 구령팻의 가마귀동산
- <도20>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고수동 거옥대
- <도21>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거옥대
- <도22> 북제주군 용수리 메조자귀
- <도23> 북제주군 용수리 메조자귀
- <도24> 북제주군 두모리 답
- <도25>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답
- <도26>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답

- <도27> 북제주군 예월읍 고성리 탐
- <도28>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탐
- <도29>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탐
- <도30> 북제주군 우도면 하교수동 가막동산
- <도31> 북제주군 우도면 하교수동 가막동산
- <도32> 북제주군 우도면 주흥동 가막동산
- <도33> 북제주군 우도면 주흥동 가막동산
- <도34> 북제주군 우도면 영일동 가막동산
- <도35> 북제주군 우도면 영일동 가막동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골왓마을 탑 1>



<골왓마을 탑 3>



<골왓마을 탑 2>



<골왓마을 탑 5>



<골왓마을 탑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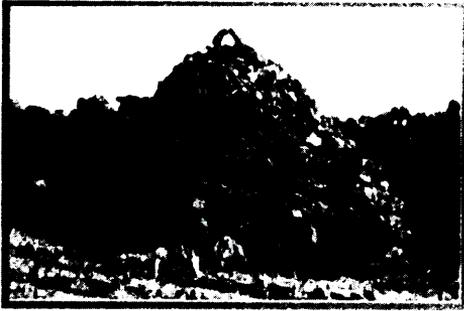
교 중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내도동 탑 6>



<영평하동 탑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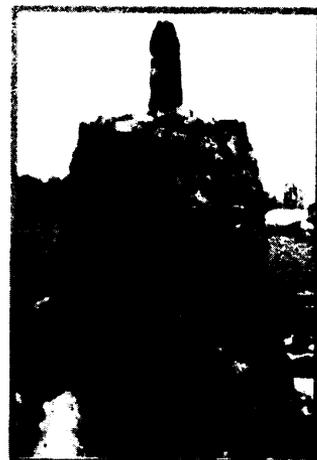
<몰래물 탑 9>



<몰래물 탑 8>



<인성리 탑 11>



<인성리 탑 10>



<화순리 탑 12>



<화순리 탑 13>



<화순리 탑 14>



<무릉리 탑 15>



<무릉리 탑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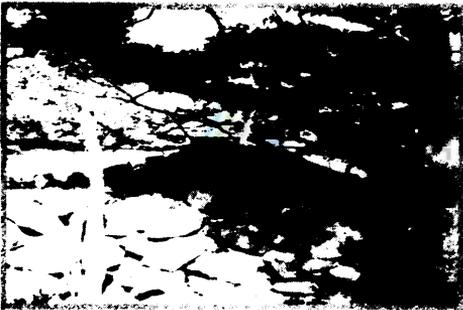
<무릉리 탑 16>



<무릉리 탑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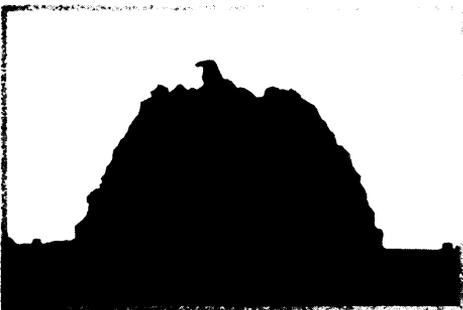
<성읍2리 구렁뿔 탑 19>



<신흥2리 고수동 탑 20>



<성산읍 시흥리 탑 21>



<용수리 탑 22>



<용수리 탑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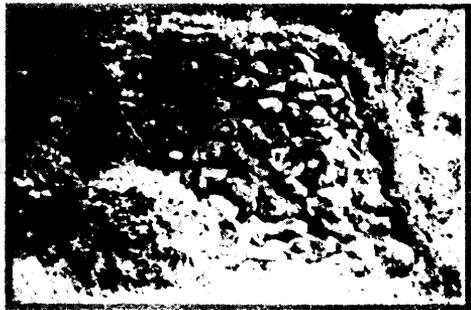
<두모리 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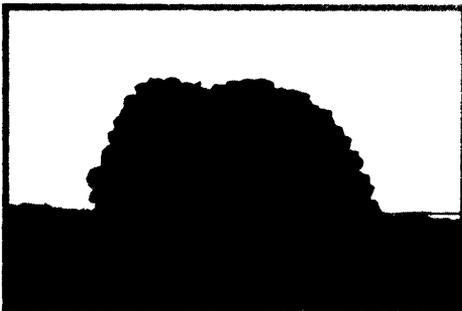
<전담동 탐 25>



<전담동 탐 26>



<고성리 탐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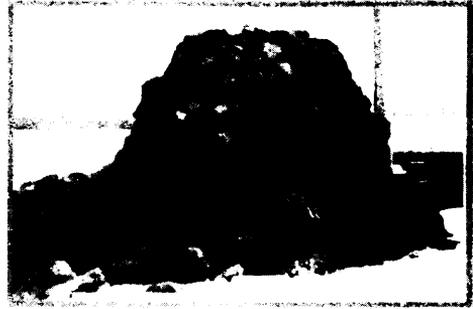
<조천읍 신흥리 탐 28>



<조천읍 신흥리 탐 29>



<하고수동 탐 30>



<하고수동 탐 31>



<주홍동 탐 32>



<주홍동 탐 33>



<영일동 탐 34>



<영일동 탐 35>

<부록> 제주도 담과 거옥대의 현지 유형 분포도

소재지	명칭	위치	수량	현존여부	재질	크기(Cm) 높이	둘레	석상의 형태	기능·목적	조성연대	관련제사 (祭日)	陰陽	금기 사항	비고	
제주시 도두2동 물래물	담, 담(楮) 가마곶동산	물래물 右	1	○	현무암	402	443	마돌허튼총쌍기 원뿔형+자연석	바닷가에서 들어오는 곳은 것을 먹는 액막 이 담.		×		×	제주도 민속자료 8-1호	
		물래물 左	1	○	현무암	424-250		꼭이 점진 좁아지는 원뿔형+ 두개의 자연 석이 마주보고 있음			×		×	제주도 민속자료 8-2호	
			1	○	현무암	416-330		마돌허튼총쌍기3단 원뿔형+ 7자형 자연 석이 서북쪽을 향함	1938年	×		×	陰陽	×	제주도 민속자료 8-3호
제주시 이호2 곶앗마을	담,담(楮), 덕지담	곶앗마을 북쪽에 로4기	1	○	현무암	295-355		마돌허튼총쌍기 원뿔 형+ 삼각뿔 자연석	곶앗마을에 사각· 圓氣가 비취 젊은 사 람이 많이 죽고 마을 에 역운을 막아 마을 이 團이라고, 북쪽에 左右로 4기 탐을 쌓 음	1938年	×		×	제주도 민속자료 8-4호	
			1	○	현무암	280-310		마돌허튼총쌍기 원뿔형+ 자연석	1938年	×		×	陰陽	×	제주도 민속자료 8-5호
			1	○	현무암	280-310		마돌허튼총쌍기 원뿔형	1938年	×		×	陰陽	×	제주도 민속자료 8-6호
제주시 내도동	담,담 거옥대, 거우기,담 거오기,담 물하트방	곶앗마을 남쪽	1	○	현무암 +나무	170-160		마돌허튼총쌍기 원뿔 형+ '나무새(가마귀)	곶앗마을 남쪽으로 사각 (圓氣)이 비취 마을에 재 앙을 막기 위해 세운 담	1938年	×		×	제주도 민속자료 8-7호	
		해안가	1	○	바닷가머뭇돌	185	396	바닷가 머뭇 허튼총 쌍기 원뿔형 + 길다란 자연석	마을에 들어오는 사각 (圓氣)과 바다의 강한 바람으로 마을 보호		×		×		
제주시 영평동	거옥대, 거우기,담 거오기,담 물하트방	영평마을 남쪽	1	△	현무암	74	189	불규칙한 사각형 현 무암+ 석인상은 동자 석과 비슷	살기 막음, 화재방 지, 전염병을 막음		×		×	1998년 3월 初에 석상분설	

강창언(1997), 제주민속의 유적, 제주도, p157-158의 담과 거옥대의 크기를 참조하여 분포도 작성.

소재지	명칭	위치	수량	현존 여부	재질	크기(Cm) 높이	둘레	석상의 형태	기능·목적	조성 연대	관련제사 (祭日)	금기 사항	비고
남계주군 성읍2리 구룡동	가마괴동산, 가메기동산	구룡동 남동쪽	1	○	현무암	293	366	막돌허튼총쌍기 원추형+ 직사각형의 자연석(남자의 性 상징)	齋壇(밥지, 아들 낳기 위한)		X	X	아들 낳기 위해 여러 돌을 올려 놓음 '+' 나무새를 밤에 남자아픈 돌에 아무로 모르게 올려 놓아야만 이 防邪가 됨
남계주군 성읍1리	거육대	성읍1리 시거니못	1	X	현무암			돌탑을 쌓음+자연석	돌동산에서 일어나는 곳은 것 막음		X	X	
남계주군 신흥1리 고수동	거육대	고수동 강병이왓	1	○	현무암 + 나무	332	290	막돌허튼총쌍기 '+', 나무새	풍수지리상 巳方이 터져 있어 '결은 사람이 좋지 못하니까', 이것을 막음		X	X	
남계주군 표선면 가시리	거육대	안좌뜰	1	X	현무암 + 나무			돌탑을 쌓음+나무새	세화리 매오름의 형상이 매가 병아리를 잡아 먹는 形으로 매를 쫓는 의미		X	X	
남계주군 남원읍 방구령	거육대	불뚜왓	1	X	현무암 + 나무			돌탑을 쌓음+나무새	세화리의 매오름의 살기가 불뚜왓에 비취 이것을 막음		X	X	
남계주군 남원읍 방구령	거육대	방구령	1	X	현무암			돌탑을 쌓음+나무새	풍수지리상 巽方으로 소도 잘 죽고, 부락에 화재도 잘 발생함으로 이것을 막음		X	X	
남계주군 성산읍 시흥리	거육대, 돌하트방, 영동하트방	시흥리 하동 바닷가	1	○	현무암 + 나무	284	300	다듬어진 현무암 원통형+ 석인상은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를 다 갖춘 돌하트방을 닮은 형으로 정면용 향해 있음	도계비 출원. 뒷불·남불의 화재 방지		X	X	

소재지	명칭	위치	수량	현존 여부	재질	크기(Cm) 높이/둘레	석상의 형태	기능·목적	조성연대	관련제사 (祭日)	陰陽	금기 사항	비고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1리	탑, 담(楹)	무릉1리 앞은左右 4기	1	○	현무암	220	거친다듬인 현무암으로 원통형+석인상은 사모와 얼굴形만을 치리	마을의 처하여 處하여 잠귀가 들어와 牛屬가 보호하고 사람이 에게 액을 막아 마을이 離하라고 밤을 방 풍·방법으로 쌓음.		×	陽	×	제주도 민속자료 8-12호
						390	거친다듬인 현무암으로 원통형+석인상은 눈,코,입,머리의 형태를 지닌 牛身上						제주도 민속자료 8-13호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1리	거육대, 돌하르방	인성리 알벵디의 左	1	○	현무암	220	거친다듬인 현무암으로 원통형+석인상은 얼굴형과 모자만 나타냄, 右側향함	牛屬가 보호, 화제 방지하여 마을에 安心 立命위해 쌓음		×	陰	×	제주도 민속자료 8-14호
						220	거친다듬인 현무암으로 원통형+석인상은 눈,코,입,머리의 형태, 左側향함						제주도 민속자료 8-15호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거육대, 돌하르방	인성리 알벵디의 右	1	○	현무암	235	거친다듬인 현무암으로 원통형+석인상은 눈,코,입,귀의 형태와 팔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陰	×	제주도 민속자료 8-16호
						225	거친다듬인 현무암으로 원통형+석인상은 눈,코,입,머리를 갖추고 있으나 귀는 생략, 몸체는 직사각형의 돌						제주도 민속자료 8-17호

소재지	명칭	위치	수량	현존 여부	재질	크기(Cm) 높이/둘레	석상의 형태	기능·목적	조성연대	판례제사 (祭日)	흉기 사상	비고
남제주군 인덕면 화순리	탐, 담, 돌하르방, 거옥대	마을 입구 칠남빛의 左右	1	○	현무암	195	거친다듬인 현무암 원 발형+ 석인상은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를 다 갖춘 돌하 르방 모양	서동네의 앞이 陰하 고 陽하여 가난하다 고 해서부자로 살기 위해 만돌		×	×	
			1	○	현무암	270	거친다듬인 현무암 원 발형+ 석상은 붉은 다 공질 용암석의 자연석		×			
		해수욕장 썩근다리 동산	1	○	현무암	217 240	마돌허튼총쌍기4단+ 석인상은 눈, 코, 입, 귀, 머리의 형태 를 갖춘 돌하르방	서동네의 힘센 사람 이 이유 없이 죽고, 기운을 되찾고 마을 의 災孽을 기원		×	×	
북제주군 고산2리 전담동	탐, 담.	칠남동산	1	○	현무암	190 330	거친다듬인 현무암 허튼총쌍기 원통형	마을 허하고 바닷물 의 '곳은 것이 마을 에 비추니까' 이것을 막기 위함.		×	×	
		소나무밭	1	○	현무암	296 470	거친다듬인 현무암 허튼총쌍기+자연석			×	×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탐, 담, 매조자귀.	바닷가 右 (새원탐)	1	○	현무암	370 500	마돌허튼총쌍기 원통형 +슬래기 形像 자연석	바닷가에서 배사고가 발생하므로 무사고를 기원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송장이 마을 로 들어오는 것을 막 음.		×	×	제주도 민속자료 8-8호
		바닷가 左 (화성물탐)	1	○	현무암	310 490	마돌허튼총쌍기 원통형 +슬래기 形像 자연석			×	×	제주도 민속자료 8-9호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탐, 담.	두모리 바닷가	1	○	현무암	175 378	거친다듬인 현무암 허튼총쌍기 원통형	마을이 허하여 이귀 가 들어오는 것을 막 는 액막이탐		×	×	
		알갓지소	1	○	현무암	350 580	거친다듬 현무암 허튼총쌍기 원통형	호젓자망지, 전염병 망지		×	×	

소재지	명칭	위치	수량	현존 여부	계질	크기(Cm) 높이/둘레	식상의 형태	기능·목적	조성연대	관련제사 (祭日)	陰陽	금기 사항	비고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탐, 담.	신흥리 바닷가 큰개 개깃마위	1	○	현무암	260 290	마돌허튼총쌍기 원통형	살(鱗)이 비추니까 鱗을 제거하고 마음 으로 탐을 쌓음		×		×	제주도 민속자료 8-10호
		신흥리 서북쪽 오다리	1	○	현무암	240 320	마돌허튼총쌍기 원통형+자연석		×			×	제주도 민속자료 8-11호
우도면 오봉리 하고수동	탐, 가마동산 액탐.	하고수동 포구 북쪽	1	○	현무암	206 290	바닷가 암반 위, 마돌허튼총쌍기 원통형+자연석	'사람이 많이 죽으니 까', '젊은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꽃은 것을 마음으로 탐을 쌓았고, 두동산을 모 아야만이 꽃은것을 마를 수 있음. 탐은 한쌍의 의미		×	陽	×	
		하고수동 포구 남쪽	1	○	현무암	240 320	바닷가 위 현무암으 로 허튼총쌍기 원통형		×			陰	×
우도면 오봉리 주흥동	탐, 담, 가마동산	주흥동 포구 북쪽	1	○	현무암	340 310	마돌허튼총쌍기 원팔형	뱀의 형국으로 돈도 빠져나가서, 가난하고 , 사람도 빠져나가서 남자가 단명한다고해 서, 이것을 防備하기 위해 쌓음. 탐은 한쌍의 의미.		×	陰	×	
		주흥동 포구 남쪽	1	○	현무암	220 270	바닷가 암반 위 현무암으로 허튼총쌍 기 원통형+자연석		×			陽	×
우도면 오봉리 영일동	탐, 담, 가마동산	영일동 포구	1	○	현무암	530 450	마돌허튼총쌍기 원팔형+사각형	바닷가 동쪽으로 굽 은 것이 들어오므로 마음에 온을 회복하 기 위해 탐을 쌓았 고, 탐을 쌓을 때는 鱗으로 쌓아야만이 마음의 온을 회복		×	陽	×	
		서북쪽 경작지	1	○	현무암	290 280	거친다듬의 현무암 허튼총쌍기 원통형		×			陰	×